

# 韓國輸出商品의 長期的 輸出可能性에 대한 商品學的考察 (其1—序說)

## 金 元 銖

### <目 次>

- I. 序 說
  - 1. 序 言
  - 2. 韓國產業의 不均等的發展
  - 3. 韓國國際收支의 推移
- II. 韓國의 輸出貿易構造
  - 1. 概 說
  - 2. 輸出商品構造
  - 3. 輸出地域構造
- III. 品目別順位決定과 研究品目의 選定

### I. 序 說

#### 1. 序 言

韓國經濟는 過去曲折의 難痛過程을 겪으며 近代化過程을 指向하고 있는데 이의 終局的目標는 自立經濟體制의 確立에 있다고 要言할 수 있다.

그러나 現實的인 面에서 볼때, 經濟自立化란 意欲의인 目標일 수 있으나, 이의 達成이란至難한 課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를 達成하여야만 한다는 것은韓國經濟의 大命題라 아니 할수 없는 것이다.

經濟自立化가 自給度의 向上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達成하는 具體的方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즉 하나는 產業構造<sup>(1)</sup>의 改編을 通하여 產業自給度를 向上시키므로서 經濟自立化를 達成하려는 封鎖的均衡體制의 確立方法이며 다른 하나는 國際分業에 의한 貿易을 通하여 自立的擴大均衡을 達成시키려는 開放的均衡體制의 確立方法인 것이다.

近代國家는 舉皆가 그 程度의 差는 있으나, 開放的均衡體制의 確立을 通한 自立化를摸索하고 있다. 그 까닭은 國際的分業을 可能하게 하는 諸要因 즉 各國民經濟構造를 하여

(1) 여기서는 產業間構造 즉 國民經濟全體內에 있어서의 各產業(業種)의 量的構成 및 各產業間의 結合, 競爭등과 같은 關係를 指稱하는 것으로 限定하여 使用하였다.

금 特異性을 가지겠금하는 生產上의 適性을 規定하는 諸要因 例컨대 (1) 天然資源의 差異 (2) 人口分布의 不均等 (3) 人間能力의 差異 (4) 過去의 遺產<sup>(2)</sup>과 같은 要因의 異質性에 緣由하는 것이다 要言한다면 根本的으로 產業의 不均等的發展이 라는 命題에 歸一시킬 수 있는 것이다.

產業의 不均等的發展이란 資本主義的經濟體制에 特有한 것으로서 이는 必然的으로 一國民經濟를 다른 國民經濟와 關聯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換言한다면 貿易依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企業活動이 營利的인 自由私企業에 의하여 營爲되는 까닭에 各企業間에는 自由競爭이 誘發되며 이러한 競爭의 結果, 產業에 따라서는 크게 成長하는 產業과 그렇지 않은 產業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產業의 不均等的發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各產業은 相互間に 市場으로서 作用하는 것이므로 相對的으로 高度成長을 成遂한 產業은 原料獲得(輸入)面이나, 혹은 製品販賣(輸出)面에서 海外市場과 關聯을 맺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例컨대 農業에 比하여 纖維工業이 高度로 成長한 경우 纖維工業은 充分한 原料를 自給할 수 없게 되므로 原料輸入을 不免케 되는 것이며 反面 著增한 生產力은 充分한 國內市場을 確保할 수 없게 되므로 不得已 海外市場을 模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例컨대 前述한 바와 같이 農業에 比하여 纖維工業이 高度로 成長한 경우에는 農業의 低位生產力은 纖維工業을 위한 充分한 原料를 供給할 수 없으므로 換言하면 纖維工業은 原料의 國內依存 즉 自給이 不可能하게 되므로 原料를 輸入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反面 著增한 纖維工業의 生產力은 이를 消化할만큼 充分한 國內市場을 確保할 수 없게 되므로 不得已 海外의 輸出市場을 開拓確保하려는 努力を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產業의 不均等的發展이 貿易依存度를 높이는 一要因임을 알수 있는 것이다.

事實 產業의 不均等的發展程度가 深化되면 될수록 一國民經濟가 正常的運行을 하기 위하여 貿易에 依存하는 程度는 더욱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面에서 韓國輸出貿易의 必然性을 模索하는 一過程으로서 韓國產業이 不均等的發展을 成遂하지 않을 수 없었던 問題點을 概觀하므로서 現時點에서의 產業構造의 不均等的發展程度를 把握하고자 한다.

## 2. 韓國產業의 不均等的發展

所謂 東方의 「隱士國(hermit nation)」이라 指稱된 鎮國韓國이 東漸하는 西歐勢力의 激浪을 막아내지 못하고 開港을 하므로서, 近代資本主義隊列에 參與하게 된 월전 以後까지도 韓國經濟는 農業偏重의 低位產業構造를 가진 封建的, 前近代的經濟體制下에 停滯하고

(2) 李相球, 國際經濟學, 1957, pp. 44~46 參照.

있었다. 즉 1920 年 6 月의 調査에 의하면 總人口 12,959,988 人中 農業人口가 無慮 9,490,694 人으로서 總人口의 73.23%를 占하고 있었다는 事實<sup>(3)</sup>에서 類推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農業一邊倒의 產業構造下에서 近代化에의 契機를 胚胎하는 途中에 日本經濟에 隸屬 當하게 됨으로 해서 韓國經濟는 宿命的으로 產業의 不均等的發展을 招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日本이 軍國主義下에 韓國을 名實共存 侵略하였던 1910 年代의 日本經濟는 資本主義의으로 工業化過程을 踏고 있는 幼稚한 產業發展段階에 놓여 있었던 까닭에 日本經濟는 韓國經濟로 하여금 成育하는 日本工業을 위한 原料 및 食糧供給地가 되게 함과 아울러 急速히 成育하는 日本工業이 大量生產하는 工業製品의 消費市場化하기 위한 植民地政策을 擇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韓國經濟는 自生的인 近代化에의 動因을 被奪 當하므로서 第 1 次 產業偏重의 產業構造에서 脫却하여 第 2 次 產業中心의 產業構造에의 構造的變革을 成遂하지 못하고 農業偏重의 產業構造下에 停滯하게 됨으로써 韓國產業은 必然的으로 不均等的發展을 成遂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日本支配下에 있어서의 韓國產業構造의 低位性에서 類推할 수 있는 바이다. 즉 第 1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 年代에 이르기까지 全 產業生產額中에 占하는 工業生產額의 比率이 不過 15%에 不外하였다는 點에

〈第 1 表〉 工業生產額推移 (選定年度) (單位 : 1,000圓)

區 分	1911		1921		1930		1937		1939		1943	
	生産額	構成比	生産額	構成比	生産額	構成比	生産額	構成比	生產額	構成比	生産額	構成比
工 業	43,528	10.64	200,535	15.40	280,963	23.89	959,308	32.65	1,498,277	38.40	2,050,000	37.10
全 產 業	409,294	100	1,302,484	100	1,176,086	100	2,937,766	100	3,902,077	100	5,526,164	100

(資料源 : 朝鮮銀行, 朝鮮經濟年報, 1948, p. 99에 의함.)

미루어 初期植民段階에 있어서의 工業화가 遲滯되었다는 事實은前述한 바 農業偏重構造下의 韓國經濟의 停滯化를 立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30年代以後부터 工業化率이 異例的으로 높아지게 된 까닭은 日本이 닥아 올 戰爭에 對備하여 軍需工業을 擴張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第 2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6 年代以後로부터 韓國의 重化學工業化率은 급작히 著增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1930 年代以後의 工業化가 주로 軍需目的을 위한 重化學工業化에 의한 것이었음을 示唆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中日戰爭이 本格化하였던 1937 年을 前後하여 1936 年에는 重化學工業化率이 約 30%이던 것이 3 年後인 1939 年에는 46%로 著增하고 1943 年에는 그 势가 若干 鈍化하긴 하였으나 約 50%에 이르고 있음에 미루어서도 日本支配下에 있어서의 韓國의 工業化란 軍需

(3) 山口豐正, 朝鮮之研究, p. 75, 高承濟, 韓國經濟論, p. 9.

&lt;第2表&gt; 重化學工業化率推移

(單位 : 1,000圓)

區 分	1936		1939		1943	
	生 產 額	構 成 比	生 產 額	構 成 比	生 產 額	構 成 比
重 化 學 工 業	205,673	% 29.64	691,066	% 46.12	1,015,000	% 49.51
輕 工 業	488,134	70.36	807,206	53.88	1,035,000	50.49
全 工 業	693,807	100	1,498,272	100	2,050,000	100

(資料源 : 同前書, pp. 100~101에 의함)

工業化의 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韓國產業構造의近代化 대지高度化를 示唆하는 指標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1945年解放과 더불어 韓國經濟가 日本의 植民主義의支配의 極權에서離脫하여 獨立的運行을 하기 以前까지의 韓國의

&lt;第3表&gt; 產業別人口構成 (1940)

區 分	人 口 數	構 成 比	
		有業人口	產業別
總 人 口	23,547,000	人 % 100	%
有 業 人 口	8,913,000	37.85	100
農 業	6,670,000		74.84
工 業	425,000		4.77
礦 業	165,000		1.85
交 通 業	109,000		1.22
其 他	1,544,000		17.32

(資料源 : 成昌煥, 韓國經濟論, 1956, p. 85.)

인 循環構造와는 何等의 有機的關聯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韓國產業의 不均等의 發展은 더욱 深化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은 重化學工業化가 이루어졌다는 事實은 韓國經濟가 日本經濟體制의 繩紲에서 脫却하여 獨立的運行을 하게 되었던 1945年的時點에서 볼 때에는 韓國經濟의 自立化를 위한 可能性을 示唆하는 指標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日本이 軍事目的을 위하여 韓國內에서 發展시킨 工業中 가장 中心的인 것은 化學工業이었는데 이는 豐富한 發電工業과 直結되는 것으로서 肥料와 火藥을 代替生產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南農北工의 韓國經濟의 均等的 發展을 위한 布石일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뿐만 아니라 食品工業, 紡績工業, 金屬工業, 機械器具工業, 窯業 등도相當히 發達되어 1941年代에는 機械器具工業을 除外한 餘他工業部門의 自給率은 第4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均 72%를 上廻하므로서 經濟自立에의 曙光의 展望을 可能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解放과 함께 獨

&lt;第4表&gt; 工業自給率 (1941年)

(單位: 100萬圓)

業種	生産額	輸入額	消費額	自給率
紡績工業	286	282	568	50.35%
金屬工業	162	109	271	59.79
機械器具工業	92	231	323	28.48
窯業	80	38	118	67.80
化學工業	819	15	834	98.20
製材及木工業	41	14	55	74.55
印刷製本業	21	6	27	77.78
食品工業	395	20	415	95.18
其他	218	75	293	74.40
總計	2,114	790	2,904	72.80

註: 筆者가 再調整하였음.

(資料源: 同前書, p. 88.)

立的運行을 하게 된 韓國經濟는 自給度가 높은 均等的發展에의 契機를 內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南北이 政治的으로 分斷되므로서 이와 같은 可能性은 霧消하였고 南農北工이라는 產業構造의 特徵의 不均等樣相이 示唆하듯 農業偏重의 南韓만의 單獨經濟體制의 形成이 不可避하였다므로 韓國(以下 南韓地域만을 특히 指稱함)의 產業의 不均等의 發展은 더욱 深化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解放이 되던 1945 年度에 있어 “年平均發電量 989,000kw 中 92%가 北韓에 偏在하였으며 南韓은 不過 8%인 80,000kw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無煙炭의 97.7%와 有煙炭의 99.5%가 北韓에 埋藏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解放當時의 工業生產을 南北韓으로 區分하여 比較하면 金屬工業, 化學工業, 電氣工業등의 重化學工業生產의 70%以上이 北韓에서 生產되었으며 南韓은 紡績工業, 食品工業등 輕工業만이 若干의 優勢를 보였음에 不過하여 工業生產總額의 2/3以上이 北韓에서 生產되었던<sup>(4)</sup>”까닭이다.

이와 같은 與件下에서 獨自의인 運行을 하지 않을수 없었던 韓國經濟는 不得已 外援에 依存하여 基本的需要는 勿論 經濟發展을 위한 投資需要를 充足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는 應當 工業自給率이 아주 낮은 韓國의 경우 貿易依存度를 높이는 結果를 招致하게 되었던 것이다.

第5表에서 보는 바와 같은 累增의인 外援의 注入은 1947 年以來로 韓國經濟로 하여금 安定化傾向을 示顯하게 함으로써 自立化에의 契機를 다시 마련하여 주었으나 1950 年 6 月

(4) 經濟企劃院, 『經濟白書』, 1963, p. 2.

&lt;第5表&gt; 外援受入總括表

(單位: 1,000 美弗)

年 度	援 助 額	趨勢比	援 助 內 譯					
			GARIOA	ECA & SEC	P.L. 480	I C A	CRIK	UNKRA
1945	4,934	2.81	4,934	—	—	—	—	—
1946	49,496	28.22	49,496	—	—	—	—	—
1947	175,371	100.00	175,371	—	—	—	—	—
1948	179,593	102.41	179,593	—	—	—	—	—
1949	116,509	66.44	92,703	23,806	—	—	—	—
1950	58,706	33.48	—	49,330	—	—	9,376	—
1951	106,542	60.75	—	31,972	—	—	74,448	122
1952	161,327	91.99	—	3,824	—	—	155,534	1,969
1953	194,170	110.72	—	232	—	5,571	158,787	29,580
1954	153,925	87.77	—	—	—	82,437	50,191	21,297
1955	236,707	134.98	—	—	—	205,815	8,711	22,181
1956	326,705	186.29	—	—	32,955	271,049	331	22,370
1957	382,892	218.33	—	—	45,522	323,267	—	14,103
1958	321,272	183.20	—	—	47,896	265,629	—	7,747
1959	222,204	126.71	—	—	11,436	208,297	—	2,471
1960	245,394	139.93	—	—	19,913	225,237	—	244
1961	199,245	113.61	—	—	44,926	154,319	—	—
1962	232,310	132.47	—	—	67,308	165,002	—	—
1963	216,483	123.44	—	—	96,828	119,659	—	—
計	3,583,785		502,097	109,164	366,784	2,026,282	457,378	122,084

註: 四捨五入關係로 合計에 若干의 誤差가 있음.

(資料源: 洪性國, “對韓美國援助의 規模와 内容(1945~1961)”, 서울大學校商科大學附屬韓國經濟研究所, 經商論集, 第1卷 第1號, 1962. 12, p. 82. 및 韓國銀行調查部, 經濟統計年報, 1964, p. 236에 의함.)

25日의 韓國動亂으로 因하여 安定的成長의 基盤은 再次 破壞되고 밀았던 것이다. 즉 國內產業施設이 約 30億弗이 나 破壞되었고 殘存施設도 稼動을 中斷치 않을수 없게 됨에 따라 工業生產額은 激減하게 되므로 韓國經濟는 다시 貿易依存을 한고비 더 深化시키지 않을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1951年에는 戰局이 小康狀態를 維持하였으나, 產業施設의 復舊가 遲延되었으므로 1952年에 이르러서야 CRIK의 援助를 中心으로 復舊段階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1953年에는 休戰이 成立되므로 해서 企業意欲이 旺盛하게 誘發되고 1945年來 最高의 外國援助를 受入하게 되므로 戰災로 因한 被害產業施設의 復舊가 한결 促進되어 1954年代에는 復興段階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復興段階에서 受入하였던 外援의 大部分은 國民生活上의 基本的需要를

&lt;第6表&gt; 韓國工業構造의 推移

	1953	1961
生産財工業	18.3%	19.3%
消費財工業	74.4	77.3
其 他	7.3	3.4
計	100.0	100.0

(資料源：韓國產業銀行調查部，韓國의 產業，1962，p. 7.)

&lt;第7表&gt; 韓國工業의 構造 (1960)

	事業體數	從業員數	生產額
生産財工業	14.0%	15.0%	11.9%
消費財工業	86.0	85.0	88.1
計	100.0	100.0	100.0

(資料源：經濟企劃院，經濟白書，1963，p. 9.)

充足하기 위한 消費財工業에 重點的으로 注入된 結果 韓國經濟의 對外依存度 특히 原材料의 輸入依存度를 높이는 結果를 招致하게 되었던 것이다.<sup>(5)</sup> 그리하여 韓國工業의 構造의 脆弱성이 더욱 深化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第6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產財工業의 比重이 1953~1961年 9個年間에 1.0%밖에 增大하지 못하였다는 點과 第7表에서 보듯 1960年度의 生產財工業對消費財工業의 比重이 事業體數에 의하여 보면 14對86從業員數로는 15對85이며 生產額上으로는 12對88로서 消費財工業이 壓倒的이라는 點에 미루어 類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工業構造의 低位性은 消費財工業의 不均等的膨脹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이에서 미루어 볼때 復興段階에 있어서는 輕工業化를 推進하기 위한 基礎原資材에 대한 輸入依存度가 激增되었을 것임은 可以 類推할 수 있는 바이다.

다시 政策의 貪囲과 無定見은 一部 輕工業部門에 過當競爭을 誘發시킬 程度로 相對의이나마 過大投資를 許容하여 過剩施設을 가지게 하였던 反面 基幹產業의 建設이 活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까닭에 持續的인 成長力이 培養되지 못하여 復興期를 持續的으로 延長시키지 못하고 마침내 1958年을 고비로 外援規模가 減縮되기 始作하자 漸進的으로 沈滯期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1960年的 4·19革命, 1961年的 5·16革命등의 政治的, 社會的不安과 같은 非經濟的要因이 國內產業의 積極的인 生產活動을 萎縮하게 시리 함으로써 貿易依存度를 더욱 高度化시키는 結果를 招致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볼때 韓國產業의 不均等的發展이 韓國經濟의 貿易依存을 必然化시키는 하나의 指標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要言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韓國工業의 停滯的인 低位構造 즉 輕工業과 重工業의 不均等的發達은 生產財工業部門은 勿論 消費財工業部門에서 所要로 하는 代替投資用施設財와 消費財工業部門의 圓滑한 運行에 必要한 原材料조차 充分히 供給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原材料는 勿論 投資財(新規 및 代替)에 대한 需要를 充足하기 위한 貿易依存이 不可避하게 되며 둘째 意欲의인

(5) 同前書, p. 5 參照.

〈第 8 表〉 國民所得의 國際比較 (1962)

國名	美國	日本	自由中國	比律賓	西獨	英國	印度	泰國	韓國
國民總生產 (100萬美弗)	553,900	47,346	12,571	4,772	77,677	95,500	30,640	2,382	2,110
人口(百萬人)	180.7	94.1	11.0	28.7	54.0	52.8	441.6	27.2	25.7
一人當國民總生產	3,065	503	151	166	1,438	1,809	69	88	82
比 較(倍)	37.38	6.13	1.84	2.02	17.54	22.06	0.84	1.07	1.00

註：印度，泰國은 國民所得基準

(資料源：經濟企劃院，前揭書，p. 6)

〈第 9 表〉 韓國 1 人當所得의 推移 (1953~1962)

年 度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國民總生產(1962年價格) (億원)	1,934.6	2,034.1	2,115.5	2,121.8	2,306.4	2,467.9	2,596.2	2,650.7	2,743.5	2,814.8	
人 口 (1,000人)	2,031.5	20,900	21,502	22,310	22,953	23,614	24,294	24,994	25,714	26,455	
人當所得 人當所得 人當所得 人當所得 人當所得 人當所得 人當所得 人當所得 人當所得 人當所得 人當所得	원 弗 趨勢比(%)	9,523	9,733	9,839	9,511	10,048	10,451	10,687	10,605	10,669	10,640
	73	75	76	73	77	80	82	82	82	82	
	100.00	102.74	104.11	100.00	105.48	109.60	112.33	112.33	112.33	112.33	

(資料源：同上書，p. 7.)

自立經濟의 達成을 위하여 不均等的劣位에 있는 重工業을 育成하여야 할 段階에 놓여 있는 韓國經濟로서는 重工業施設財에 대한 莫大한 需要를 貿易에 依存하여 充足치 않을 수 없게 되며 셋째로 重工業에 比하여 不均等的으로 過大投資且 輕工業部門의 著增된 生產力은 相對的으로 低位에 停滯하고 있는 所得水準 및 所得의 不均等的配分으로 말미암아, 이를 充分히 消化할 수 있는 國內市場을 開拓確保할 수 있게 됨으로써 不得已 突破口를 海外市場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事態에 直面하게 됨으로써 貿易依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所得水準의 低位水準에서의 停滯는 第 8 表에서 보듯 1962 年度의 1 人當所得은 美國의 約  $1/37$ , 日本의 約  $1/6$  程度에 不過하며 더구나 第 9 表에서 보듯 1953 부터 僅少한 增加趨勢를 示顯하기는 하나 韓國의 1 人當國民所得은 80 弗内外를 低迷하고 있는 實情에 있는 것이다.<sup>(6)</sup> 1955 年度의 地域間所得格差의 存在는 成育하는 輕工業에 대한 市場의 都市偏倚를 示唆하는 것으로서 第 10 表에서 보듯 1 人當國民所得과 就業構造를 指標로 한 所得格差順位를 道別로 算定하여 보면 大都市를 包容하고 있는 道의 所得格差가 그렇지 않은 道의 그것보다 낮다는 事實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農業偏重의 地域에 있어서의 所得格差가 큼을 反證하는 것으로서 輕工業生產力を 消化할 消費市場構造가 都市에 偏倚하고 있

(6) 同前書, pp. 6~7 參照.

&lt;第10表&gt; 地域間所得格差別順位 (1955)

區 分	1人當所得		就業人口比				順位合計	格差順位
	比 率	順 位	一次產業	順 位	二次產業	順 位		
서 울	190%	1	1.12%	1	3.84	1	3	1
京 繩	93	3	52.94	3	1.71	5	11	4
忠 北	85	4	67.29	7	1.02	9	20	8
忠 南	84	5	64.16	6	1.40	6	17	6
全 北	85	4	69.22	8	1.13	7	19	7
全 南	93	3	75.09	9	1.09	8	20	8
慶 北	99	2	61.25	5	2.30	2	9	3
慶 南	99	2	49.74	2	1.95	4	8	2
江 原	82	6	58.46	4	2.29	3	13	5
濟 州	73	7	96.68	10	1.01	10	27	9
備 考	平均所得 원에 대 한 比率 임	44.048						

(資料源：吳萬植，“韓國經濟의 地域構造”，서울大學校商科大學附屬韓經濟研究所，經濟論集，第2卷第1號，1963, 12, p. 47에 의함.)

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이에서 미루어 韓國輕工業의 相對的過剩生產力의 存在와 이의 輸出餘力으로서의 作用을 妥當視할 수 있는 것이다.

擧皆의 “後進國이 國際經濟圈內에 進入할 때에는 먼저 그 特產品인 第1次產品을 輸出하고 先進工業國으로부터 消費財工業品을 輸入한다. 이는 比較生產費構造의 差異에 緣由한다. 그리고 이때의 後進國의 貿易은 近接한 同質的經濟構造를 가지는 諸國家間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遠隔한 異質的構造關聯을 가지는 諸國家間에 發展하는 것이다.

다음 第2段階로서 國內의 輸入品市場을 販路로 하는 輸入品의 國內生產이 일어난다. 消費財工業이 勃興하면 先進國으로부터의 完成消費工業品의 輸入은 停滯化하고 減少하게 되는 反面 消費財工業을 위한 施設財의 輸入이 必要하게 되어 先進工業國으로부터의 輸入은 消費財로부터 資本財로 移行하게 되는 것이다.

第3段階에서는 後進國에서 勃興한 消費財工業이 發展하여 輸出產業化하게 되고 工業原料를 中心으로 輸入이 이루어지게 된다.

第2段階에서부터 生產財生產이 開始되어 段階的으로 重工業化的 길을 걸어 輸出產業으로 育成되므로서 均等的成長을 成遂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7)</sup>

이와 같은 工業의 類型的發展段階에 미루어 볼 때 韓國經濟는 一旦 輸入代替消費財工業의

(7) 赤松要, “世界經濟の 構造的矛盾”, 國際經濟學會編, 世界經濟の 構造的矛盾, 國際經濟, 第11號, 1960, pp. 5~7 參照.

發展段階을 지나 部分的으로는 輸出產業으로 發展될 段階에 이르고 있는 것 같으며, 아울러 重工業建設이 意欲의으로 推進되고 있다는 點에서前述한 第2段階의類型에 近似한 發展段階에 이르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이에서 미루어前述한 바와 같은 韓國經濟의 貿易依存의 必然性은 肯定할 수 있는 바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國民經濟의 正常的運行을 위해서 所要로 하는 原材料는 勿論 重工業化를 위한 莫大한 投資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龐大한 輸入을 하지 않을수 없는 韓國經濟는 從來 累增되어 온 外援으로서 이를 支撐하여 왔었다. 그러나 1958年을 고비로 外援規模가 減縮되기 始作하자 輸入需要를 自力으로 解決하는 길을 模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自力輸入力を 높이기 위한 輸出促進이 當面課題로 登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輸出에서 穢得되는 外換으로 輸入需要를 充足함으로써 提高到開放的均衡水準下에서의 自立化를 可期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面에서 韓國의 國際收支의 推移를 考察함으로써 韓國經濟에 있어 輸出促進이 가지는 當爲性을 究明하고자 한다.

### 3. 韓國國際收支의 推移

比較的 戰災가 復舊되어 復興期(1954~1958)에 접어든지 2年이 經過하여 安定化趨勢를 示顯한 1955年을 基準으로 하여 볼때 韓國의 國際收支는 經常收支面에 있어 average 292.3百萬美弗이라는 赤字를 示顯하고 있으므로서 國際收支의 慢性的逆調라는 後進國의 樣相을

<第11表> 國際收支의 推移 (1955~1956) (單位: 百萬美弗)

區 分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	A. 受入額 年變動比	70.6 100.00	64.7 91.64	78.7 111.47	92.4 130.87	103.6 146.74	116.9 165.58	145.6 206.23	163.2 231.16	175.5 248.58
2	B. 輸出額 年變動比 構成比 $(\frac{B}{A})$	17.6 100.00	25.2 143.18	19.4 109.23	17.1 96.16	19.7 111.93	32.8 186.36	40.9 232.39	54.8 311.36	86.8 493.18
3	C. 支出額 年變動比	337.3 100.00	394.0 116.78	466.2 138.22	403.6 119.66	331.1 98.16	379.2 112.42	344.0 101.97	453.4 134.42	578.5 171.51
4	D. 輸入額 年變動比 構成比 $(\frac{D}{C})$	327.6 100.00	380.1 116.03	390.4 119.17	343.7 104.91	273.4 83.46	305.4 93.22	283.1 86.42	388.5 118.59	497.0 151.71
5	國際收支差 年變動比	-266.7 100.00	-329.3 123.47	-387.5 145.29	-311.2 116.69	-227.5 85.30	-262.3 98.35	-198.4 74.39	-290.2 108.81	-403.0 151.11
6	輸出의 國際收 支改善寄與率 $(\frac{B}{C})$	5.22	6.40	4.16	4.24	5.95	8.65	11.89	12.09	15.00
7	輸出의 輸入 寄與率 $(\frac{B}{D})$	5.37	6.63	4.97	4.98	7.21	10.74	14.45	14.11	17.46

(資料源: 韓國銀行調查部, 經濟統計年報, 1960, p.216. 1961, p.194. 1962, p.186. 1963, p. 206, 1964, pp.202~203에 의함)

如實히 露呈하고 있다.

이와 같은 樣相은 흔히 云謂되듯 國際收支의 構造的不均衡이라 指稱되는 弗貨不足 現象을 端的으로 示唆하는 것으로서 이를 癡來케하는 根本的要因은 生產能力의 著減과 強力한 復興意欲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8)</sup> 왜냐하면 이는 비단 韓國뿐만 아니라, 第2次大戰終結後의 各國에서도 一般化되었던 事態로서 戰爭으로 萎縮疲弊한 生產力에도 不拘하고, 急速히 經濟復興을 推進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第1次大戰後의 美國以外의 各國의 國際收支는 長期的으로 赤字를 示顯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韓國의 경우 時差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構造的不均衡은 龐大的 外援의 注入에 依하여 支撐되어 왔음을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오늘날 韓國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國際收支의 構造的不均衡은 第1次產品輸出國으로서 第1次產品輸出의 相對的不振<sup>(9)</sup>에서 癡來되는 것임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輸出資源의 未開發을 意味하는 것으로 이에서 招致되는 國際收支의 逆調는 意欲의 in 工業化와 經濟發展을 위해 所要되는 輸入ability을 抑制하는 要因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輸出의 相對的不振에도 不拘하고 工業化 내지 近代化를 強力히 反映하여 形成되는 旺盛한 輸入需要는 結果的으로는 長期的으로 國際收支의 赤字가 慢性化하도록 합으로써 마침내 外換事情의 惡化를 自招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까닭이다.<sup>(10)</sup>

1955~1963年 9個年間의 國際收支差의 推移를 보면, 1957年을 頂上으로 하여 收支差規模가 減縮되어 오다가 1961年부터 反增하게 된 것은 從來 抑制되어 왔던 輸入의 著增으로 因한 것임은 收支差와 輸入額指數의 上昇傾向이 近似함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시 受入과 支出規模를 對比하여 볼때, 비록 慢性的逆調라는 與件下에서 나마 收入의 伸長率이 1956年에 異例적으로 1955年度의 水準을 約 0.8% 下迴하였을뿐 그 以後로는 꾸준히 上昇趨勢를 示顯하고 있음은 國際收支의 改善傾向을 示唆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國際收支의 改善은 1959年以後로부터의 貿易收入의 著增에 緣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輸出稼得額<sup>(11)</sup>의 國際收支改善寄與率의 推移를 보면 輸出이 著增하기始作한 1959年부터 急激히 上昇하기始作하여 1963年에는 15%를 占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는 곧 韓國의 國際收支는 輸出增加에 의하여 改善될 수 있는潛在的寄與價值를 示唆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第12 및 13表에서 보듯 援助受入의 規模가 累年 減縮되는 傾向에 있고 金 및 外貨保有高의 減減傾向을勘案할 때 國民經濟의 正常水準의 維持를 위한 輸入을 刃발침하고 아울러 一定比率의 外貨保有高를 確保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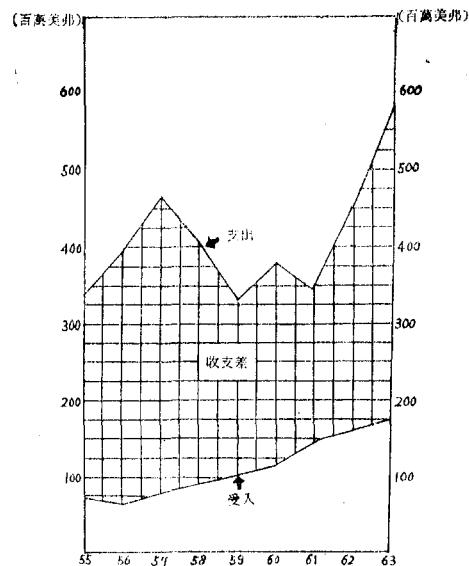
(8) 大來佐武郎, “世界經濟の 構造的矛盾と 貿易の 擴大”, 國際經濟學會編, 前揭書, p. 148 參照.

(9) 非工業地域의 輸出困難의 一般化에 대한 例證은 日本通商產業省, 通商白書, 總論, 1962, p. 287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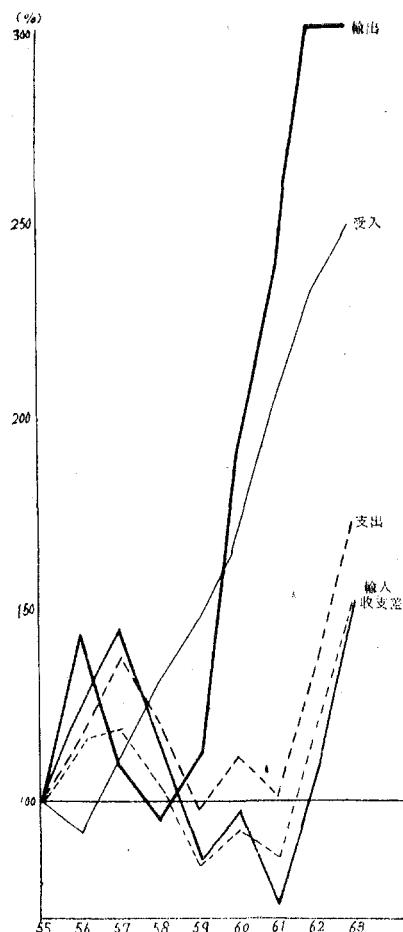
(10) 大來佐武郎, “世界經濟の 構造的矛盾と 貿易の 擴大”, 國際經濟學會編, 前揭書 pp. 151~152 參照.

(11) 註(16)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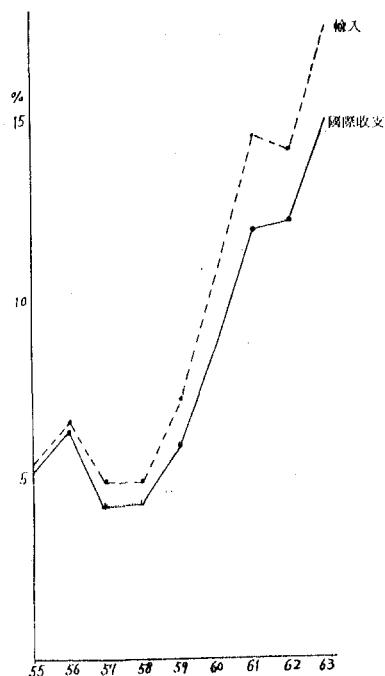
<第 1 圖> 國際收支 及 收支差



<第 2 圖> 國際收支，貿易支出 及 收支差的 移推



<第 3 圖> 輸出의 國際收支改善  
寄與率 及 輸入寄與率推移



&lt;第 12 表&gt; 外 損 減 少 推 移 (單位 : 1,000 美 弗)

區 分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金 額	236,707	326,705	382,892	321,272	222,204	245,394	199,245	232,310	216,483
年 變 動 比	100.00	138.02	161.76	135.73	93.87	103.67	84.17	98.14	91.46
對前年比增減率	—	+38.02	+17.20	-16.09	-30.84	+10.44	-18.81	+16.60	-6.81

(資料源 : 第 5 表 同)

&lt;第 13 表&gt; 金 額 外 貨 保 有 高 推 移 (單位 : 1,000 美 弗)

區 分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金 額	96,080	98,572	115,565	146,482	147,250	157,026	207,045	168,640	131,484
年 變 動 比	100.00	102.59	120.28	152.46	153.26	163.43	215.49	175.52	136.85
對前年比增減率	—	+ 2.59	+17.24	+26.75	+ 0.52	+ 6.64	+ 31.85	-18.55	-22.03

(資料源 : 韓國銀行調查部, 經濟統計年報, 1964, p. 204 에 의함.)

하여는 輸出伸長만이 韓國經濟의 大命題임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經常受入上 占하는 貿易受入의 構成比가 輸出이 著增하기 始作한 1960 年부터 높아지기 始作하여 1963 年에는 約 50%를 占하게 되었다는 事實에서도 輸出의 國際收支改善要因으로서의 寄與價值를窺知할 수 있는 것이다.

復舊需要의 著增으로 因하여 支出規模가 擴大된 1956 年度 以後로 國際收支의 支出規模는 若干의 起伏을 나타내며 1955 年의 水準을 上廻하다가 1961 年以後부터 急激히 著增하기 始作하였는데 이는 輸入의 增大에 起因하는 것이다. 즉 輸入의 支出에 대한 構成比의 推移를 보면 平均 83.28%를 차지하여 支出規模의 絶對的決定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1961 年부터 著增한 輸入과 支出指數의 上昇傾向이 一致함에 미루어서도 이는 首肯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輸出의 國際收支改善寄與率과 自力輸入力의 指標가 되는 輸出의 輸入寄與率의 增大趨勢가 大體로 一致한다는 事實은 輸出이 야말로 自力輸入의 뒷받침이 되는 外換供給要因임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러나 格差가 0.15, 0.23, 0.81, 0.74, 1.26, 2.09, 2.56, 2.46 과 같이 累年 擴大되는 까닭은 貿易外支出規模가 漸次 擴大되어감을 意味하며 輸出이 그만큼 貿易外支出의 財源이 되고 있음을 暗示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換言한다면 貿易外收支는 非均衡的으로 支出超過를 나타내고 있음을 示唆하며 이는 곧 國際收支가 貿易外受入의 增大에 의해서는 改善될 餘地가 거의 없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때 비록 構造的不均衡의 與件下에서 韓國의 經常國際收支가 支拂超過를 示顯하여 赤字累積에 停滯하고 있기는 하나 近間의 輸出伸長을 통해 이의 改善可能性을暗示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輸出振興이 韓國經濟의 自立化를 뒷받침하는決定的要因임을 看取할 수 있으며 輸出伸長의 當爲性과 必然性을窺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本小論은 輸出振興을 目的으로 現在 輸出되고 있는 各商品의 潛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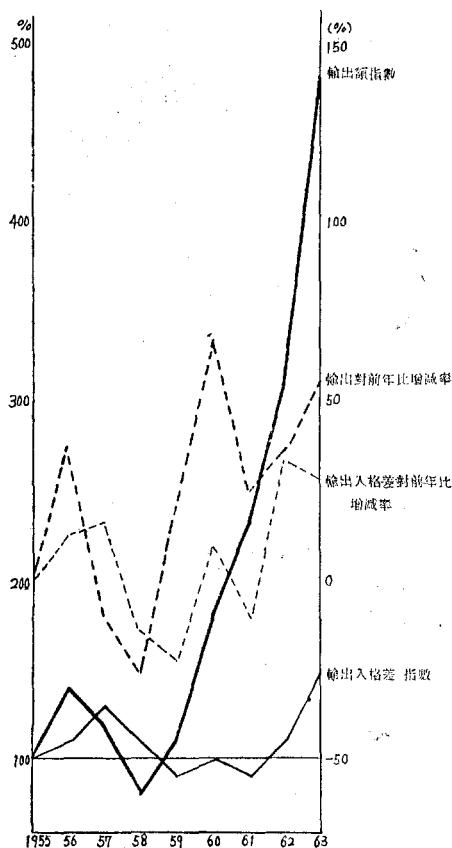
的輸出寄與價值量 퉁히 商品學的立場에서 長期的으로 分析檢討하고자 意圖하는 것이다.

## II. 韓國의 輸出貿易構造

### 1. 概 說

1955 年을 基準으로 하여 韓國의 輸出貿易의 趨勢를 본다면 輸出額指數는 1957 年 및 1958 年 兩年間의 例外가 있기는 하나 全般的增大趨勢를 示顯하고 있으며 1960 年以後로는 急激한 上昇傾向을 가진 成長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第 14 表에서 보듯 年平均輸出成長率이 47.89 %를 示顯하므로서 平均하여 每年約 0.5倍의 規模로 輸出이 擴大되어 왔음을 알수 있다. 對前年比의 推移를 보면 尤甚한 起伏를 示顯하고 있는데 이는 輸出貿易의 擴大規模가 非安定的임을 意味한다. 왜냐하면 對前年比의 趨勢가 安定的인 傾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前年度에 對比하여 輸出規模가 安定的比率로 擴大됨을 意味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對

<第 4 圖> 輸出 및 輸出入格差의 推移



前年比趨勢의 屈曲이 茲한 것은 輸出貿易構造의 脆弱性을 端的으로 示唆하는 指標로 看做할 수 있다.

다음 輸出入格差指數의 推移를 보면 1959 ~ 1961 年間을 除外하고는 1955 年度의 水準을 上廻하고 있으나 그 比率이 그다지 높지 않음은 輸出增大가 擴大性向을 가진 輸入規模의 増分을 어느程度 커버하고 있음을 示唆한다. 그리고 輸出入格差의 對前年比推移를 보면 이는 輸出額의 對前年比推移와 近似한 屈曲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輸出規模의 擴大 내지 縮小가 곧 輸出入格差規模의 擴大 내지 縮小를 齊來케 하는 一要因임을 意味하는 것이다.

1959 年부터 繼續的인 上昇趨勢를 나타내기 始作한 輸出의 規模는 年均 年率 193.32%의 規模로 累年 著增하기 始作하여 1963 年에 이르러서는 1955 年에 比하여 約 5 倍의 規模로 擴大되었다. 이와 같은 面에서 볼때 輸出絕對額規模의 擴大可能性의

&lt;第14表&gt; 貿易總括表

(單位: 1,000美弗)

年 度	輸 出	輸 入			輸出入格差	
		一 般	援 助	計		
1955	金 年 間 變 動 額 對前年比增減率	17,966 100.00 —	108,628 100.00 —	232,787 100.00 —	341,415 100.00 —	323,449 100.00 —
1956	金 年 間 變 動 額 對前年比增減率	24,595 136.90 + 36.90	66,166 60.91 + 39.09	319,897 137.42 + 37.42	386,036 113.08 + 13.08	361,468 111.75 + 11.75
1957	金 年 間 變 動 額 對前年比增減率	22,202 123.58 — 9.73	46,935 43.21 — 29.06	395,239 169.79 + 23.55	442,174 129.51 + 14.53	419,972 129.84 + 16.19
1958	金 年 間 變 動 額 對前年比增減率	16,451 91.57 + 25.90	48,675 44.81 + 3.71	329,490 141.54 — 16.63	378,165 110.76 + 14.48	361,714 111.83 — 13.87
1959	金 年 間 變 動 額 對前年比增減率	19,812 110.28 + 20.43	80,966 74.54 + 66.34	222,841 95.73 — 32.37	303,807 88.99 — 19.66	283,995 87.80 — 21.49
1960	金 年 間 變 動 額 對前年比增減率	32,827 182.72 + 65.69	97,168 89.45 + 20.01	246,359 105.83 + 10.55	343,527 100.62 + 13.07	310,700 96.06 + 9.40
1961	金 年 間 變 動 額 對前年比增減率	40,878 227.53 + 24.53	10,138 94.95 + 6.14	213,003 91.50 — 13.54	316,141 92.60 — 7.97	275,263 85.10 — 11.41
1962	金 年 間 變 動 額 對前年比增減率	54,813 305.09 + 36.54	178,289 164.13 + 72.87	242,792 104.30 + 13.99	421,081 123.33 + 33.19	366,268 113.24 + 33.06
1963	金 年 間 變 動 額 對前年比增減率	86,802 483.15 + 58.36	232,707 214.22 + 30.52	327,566 140.72 + 34.92	560,273 164.10 + 33.06	473,471 146.38 + 29.27

(資料源: 韓銀調查部, 經濟統計年報, 1964, p. 212에 의 함).

素地가 充分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對前年比의 增減率을 보면 1957年 및 1958年兩年을 除外하고는 累年 增大趨勢를 示顯하고 있다. 1957~1958兩年間に 輸出이 減縮하게 된 까닭은 從來 韓國輸出商品의 大宗을 이루고 있던 重石의 輸出이 戰爭景氣의 後退로 말미암아 激減하게 되고 德구나 海外에서 重石礦이 發見되는 등 世界市場에 있어서의 重石供給構造의 變動이 韓國重石에 대한 需要를 累減시켜 輸出絕對額의 減縮을 招致케 하였던 것이다. 이는 勿論 下述하는 바와 같이 韓國의 輸出貿易構造의 脆弱性을 反映하는 것으로 특히 輸出商品構造의 脆弱性에 緣由한다. 換言하면 輸出品目的 多角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幾個品目에 偏倚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0年度부터는 輸出規模가 著增하기 始作하였는데, 이와 같은 輸出增大의一般的趨勢는 國內產業基盤의 強化, 世界景氣의 全般的上昇, 輸出構造의 改善 및 輸出振興을 위한 努力의 結果 成就된 것이며 앞으로의 輸出展望에 대한 樂觀的示唆를 許與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以下에서는 韓國輸出의 商品 및 地域構造를 概觀하고자 한다.

## 2. 輸出商品構造

標準國際貿易分類(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에 따른 韓國輸出商品의 類別輸出趨勢를 보면 第 15 表와 같으며 이를 圖示하면 第 5 圖와 같다.

1955 年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年間變動比 即 輸出額指數의 上昇傾向이 가장 높은 商品類는 原料別製品, 食料品과 산 動物, 飲料 및 煙草, 化學製品, 動植物性油脂의 順位로 되어 있으며 가장 安定의 成長趨勢를 나타내는 商品類는 非食用原料이다. 이는 곧 輸出商品構造上에 있어 輸出額의 比較的 安定의 임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러나 反面 이는 輸出總

&lt;第 15 表&gt; 商 品 類 別

類 別		1955	1956	1957	1958	
0	食 料 品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1,094 100.00 — 6.09	1,504 137.48 + 37.48 6.12	3,315 303.02 + 120.41 14.93	2,456 224.50 — 25.91 14.93
1	飲 料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20 100.00 — 0.11	1 5.00 — 95.00 0.004	53 265.00 + 5,200.00 2.39	0 0 0 0
2	非 食 用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14,658 100.00 — 81.59	20,545 140.16 + 40.16 83.53	14,591 99.54 — 28.98 65.72	10,583 72.20 — 27.47 64.33
3	礦 物 性 燃 料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488 100.00 — 2.72	110 22.54 — 77.46 0.45	6 12.30 — 95.54 0.03	297 60.86 + 4,850.00 1.81
4	動 植 物 性 油 脂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29 100.00 — 0.16	61 210.34 + 110.34 0.25	35 120.69 — 42.62 0.16	162 558.62 + 362.86 0.98
5	化 學 製 品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85 100.00 — 0.47	3 3.53 — 96.47 0.01	6 7.06 + 100.00 0.03	10 11.76 + 66.67 0.06
6	原 料 別 製 品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870 100.00 — 4.84	2,053 235.98 + 135.98 8.35	3,394 390.11 + 65.32 15.29	2,408 276.78 — 29.05 14.64
7	機 械 動 類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240 100.00 — 1.34	190 79.17 — 20.83 0.77	56 23.33 — 70.53 0.25	4 1.67 — 92.86 0.02
8	雜 製 品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448 100.00 — 2.49	213 47.54 — 52.46 0.87	640 142.86 + 200.47 2.88	148 33.04 — 76.87 0.90
9	未 分 類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34 100.00 — 0.19	22 64.71 — 35.29 0.09	106 311.76 + 381.81 0.48	383 1,126.47 + 261.32 2.33
	總 計	變 動 比 年 對 年 前 成 構	17,966 100.00 — 100	24,595 136.90 + 36.90 100	22,202 123.58 — 9.73 100	16,451 91.57 — 25.90 100

註：四捨五入關係呈 合計에 若干의 誤差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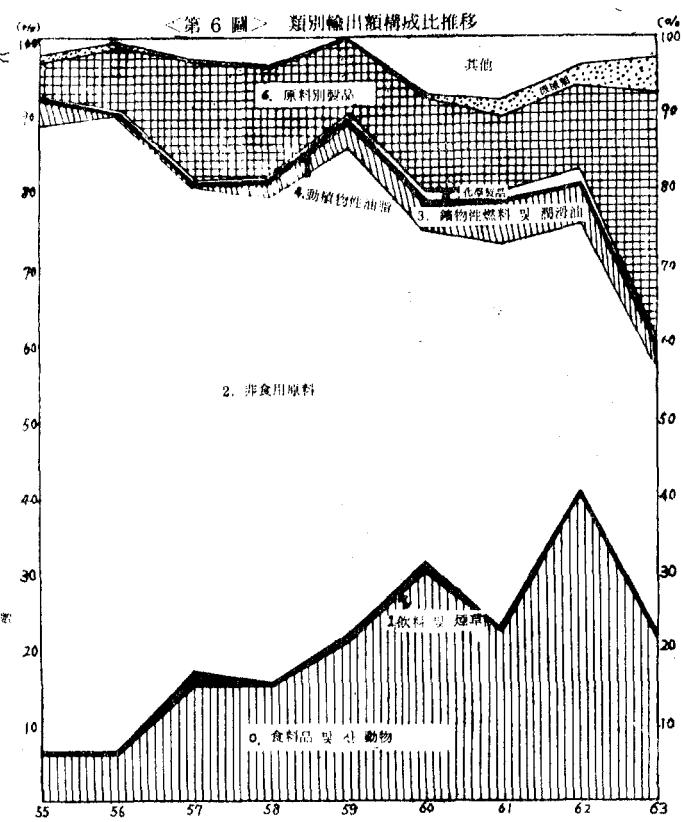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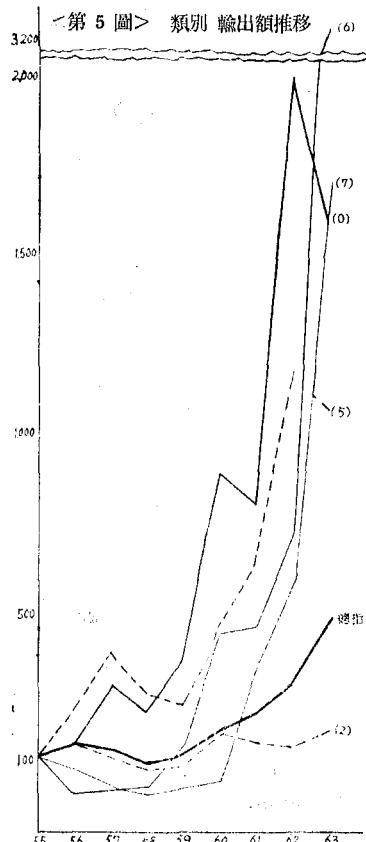
(資料源：韓國銀行調查部，經濟統計年報，1960，pp.178~180，1961，pp.148~150，1962，pp.

對規模가 擴大되는 程度로 成長하지 못함을 意味한다.

構成比의 推移를 볼때 第6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輸出商品의 3大類別品은 非食用原料, 食料品 및 三動物과 原料別製品임을 알 수 있다. 非食用原料는 1955~1956年間에 平均 82.56%를 占하여 輸出의 大宗을 이루었으나 그 以後로는 減減하기始作하여 1962~1963年間에 平均 32.88%로 轉落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絶對額面에서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非食用原料의 構成比가 減縮하게 된 原因은 前述한 바와 같이 이의 輸出成長率이 總輸出成長率을 下迴한다는 點에 있으며 이는 곧 1955~1956年間에 있어 平均

輸出額 (1955~1963) (單位 : 1,000美弗)

1959	1960	1961	1962	1963	平均
4,118	9,701	8,948	21,847	17,841	7,869
376.42	886.75	817.92	1996.98	1630.66	—
+ 67.67	+ 135.58	- 7.76	+ 144.16	- 18.34	—
20.79	29.55	21.89	39.86	20.55	22.31
106	451	184	141	250	134
530.00	2,255.00	920.00	705.00	1,250.00	—
+ 100.00	+ 325.47	- 59.20	- 23.37	+ 77.31	—
0.54	1.37	0.45	0.26	0.29	0.38
11,713	15,816	20,958	19,372	26,405	17,182
79.91	107.90	142.98	132.16	180.14	—
+ 10.68	+ 35.03	+ 32.51	- 7.57	+ 36.31	—
59.12	48.18	51.27	35.34	30.42	48.88
657	1,147	2,209	2,760	2,579	1,139
134.63	235.04	452.06	565.57	528.48	—
+ 121.21	+ 74.58	+ 92.59	+ 24.94	- 6.56	—
3.32	3.49	5.40	5.04	2.97	3.24
177	199	118	69	92	105
610.34	686.21	406.90	237.93	317.24	—
+ 9.26	+ 12.43	+ 40.70	- 41.52	+ 33.33	—
0.89	0.61	0.29	0.13	0.11	0.30
115	401	550	990	904	340
135.29	471.76	647.06	1,164.71	1,063.53	—
+ 1,050.00	+ 248.70	+ 37.16	+ 80.00	- 8.69	—
0.58	1.22	1.35	1.81	1.04	0.97
2,139	3,937	4,004	6,177	28,115	5,900
245.86	452.53	460.23	710.00	3,231.61	—
- 11.17	+ 84.06	+ 1.70	+ 54.27	+ 355.16	—
10.80	11.99	9.79	11.27	32.39	16.79
48	88	884	1,446	4,067	780
20.00	36.67	368.33	602.50	1,694.58	—
+ 1100.00	+ 83.33	+ 904.55	+ 63.57	+ 181.26	—
0.24	0.27	2.16	2.64	4.69	2.22
86	93	791	1,954	6,401	1,197
19.20	20.76	176.56	436.16	1,428.75	—
- 41.89	+ 8.14	+ 750.54	+ 147.03	+ 227.58	—
0.43	0.28	1.94	3.56	7.37	3.44
653	995	2,232	57	146	514
1,920.59	2,926.47	6,564.71	167.65	429.41	—
+ 70.50	+ 52.37	+ 124.31	+ 97.45	- 156.14	—
3.30	3.03	5.46	1.04	1.68	1.46
19,812	32,827	40,878	54,813	86,802	35,160
110.27	182.72	227.53	305.09	483.15	—
+ 20.43	+ 65.69	+ 24.58	+ 36.54	+ 58.36	—
100	100	100	100	100	100.00



6.15%를 占하던 食料品 및 산動物과 6.59%를 占하던 原料別製品이若干의 起伏은 있으나 꾸준히 成長하여 1962~1963年間에 前者가 平均 30.25%，後者가 平均 21.83%를 占하게 될에 따라 非食用原料가 壓迫을 받게 된 까닭이다.

이以外에도 鑛物性燃料 및 潤滑油가 1957年以後로 增大趨勢를 示顯하다가 1962年以後로 鈍化傾向을 나타내며 反對로 機械類는 1960年以來로 健實한 成長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化學製品도 비록 1962年以後로 鈍化傾向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1958年以後로는 增大傾向을 示顯하고 있는데 이러한 事實은 韓國輸出商品構造에 變革이 일어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즉 輸出絕對規模의 擴大에도 不拘하고 韓國輸出의 大宗을 占하던 非食用原料의 構成比가 減減하게 되는 事實은 이의 輸出促進의 彈力性이 거의 없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換言한다면 輸出增大는 食料品과 산動物 및 製造工業品인 原料別製品, 其他的 輸出增大로 因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下述하는 바와 같이 韓國의 輸出商品構造가 第1次產品中心의 原始的構造로 早

&lt;第 16 表&gt; 商品構造變動의 推移 (單位 : %)

區 分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第 1 次 產 品 (0,1,2,3,4)	90.67	90.35	83.25	82.05	84.66	83.19	79.31	54.34	54.67
第 2 次 產 品 (5,6,7,8,9)	9.38	10.09	18.93	17.95	15.35	16.79	20.70	47.19	45.35
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源 : 第 15 表)

&lt;第 17 表&gt; 產業構造變動의 推移 (單位 : %)

區 分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第 1 次 產 業	42.3	39.7	39.7	39.9	38.5	38.0	40.3
第 2 次 產 業	15.2	17.0	18.3	18.7	20.0	20.5	20.6
第 3 次 產 業	42.5	43.3	42.0	41.4	41.5	41.5	39.1

(資料源 : 經濟企劃院, 前揭書, p. 8.)

脫却하여 第 2 次產品中心의 近代的構造에로의 移行過程에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며 아울러 輸出商品構造가 單類商品에 偏重한 脆弱的構造로부터 多類商品에 依存하는 多角的構造에로의 變革過程을 眾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便宜上 上掲 類別項目을 產業源에 따라 大體의으로 分類하면 第 16 表와 같으며 이에서 미루어 볼때 皮相의 考察이긴 하나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輸出商品構造의 重心이 第 1 次 產品으로부터 第 2 次 產品으로 移行하고 있음을 瞰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韓國의 產業構造가 第 1 次 產業中心의 低位構造로부터 脱却하여 漸次로近代化過程을 跟아 비록 低位構造이긴 하나 工業化가 推進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第 17 表와 같은 產業構造의 推移와 對比해 볼때 類推할 수 있는 까닭이다.

즉 1955 年以來로 第 2 次 產業이 漸次 成長하게 된으로서 產業構造의近代化가 進展되어 왔으나 成育하는 消費財工業의 主市場이 되는 農業은 1962 年만 하드라도 13 歲以上 有業人口의 70.5%<sup>(12)</sup>를 包容하면서도 農業生產性의 落後와 農民所得의 低位水準에서의 停滯로 말미암아 產業成長의 誘因이 되는 高度의 消費市場化할 수 없게 된으로서 韓國의 消費財工業은 相對的過剩生產狀態에陷入하게 되어 輸出餘力を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까닭에 上述한 바와 같은 構造的變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推斷하여도 過言이 아니리라 생각된다. 換言하면 國內需要의 停滯가 市場狹隘을 招致하게 되므로서 成育하는 產業으로 하여금 輸出에 依存치 않을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面에서 韓國輸出商品構造의 特徵은 그 重心이 第 1 次 產品으로부터 第 2 次 產

(12)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63, p. 28.

品으로 移行하여 가는 構造的變革過程을 겪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이의 中心이 되는 3大類別商品은 非食用原料, 原料別製品 및 食料品과 畜動物이다.

主要品目別輸出實績을 보면 第 18 表와 같으며 1955 年<sup>(13)</sup>을 基準으로 한 主要品目別輸出額指數의 推移, 構成比推移 및 1955~1963 年間平均構成比<sup>(14)</sup>를 각各 圖示하면 第 7 圖第 8 圖 및 第 9 圖와 같다.

1955~1963 年間平均品目別構成比의 順位에 따른 上位品目別로 輸出額推移를 보면 韓國輸出의 大宗을 이루던 重石이 1960 年을 고비로 漸次 下降趨勢를 示顯하며 黑鉛은 1957 年을 고비로 下降하기 始作하여 1958 年以來로는 1955 年水準以下를 低迷하여 이의 約 70% 的 水準에 停滯하고 있다.

1959 年以來 비로소 輸出되기 始作한 算의 輸出額推移는 起伏이 尤甚하여 正常의去來品目이기보다는 政策的輸出의 樣相을 示顯하고 있다.

安定的趨勢를 나타내는 品目은 寒天, 鐵礦, 豚毛, 生絲, 金, 無煙炭, 單合板 등이며 急激한 成長趨勢를 나타내는 品目으로는 乾魚介類, 鮮魚介類, 編織物, 豚등이다.

다음 構成比推移面에서 볼때, 其他品目的 比率이 著大한데, 이는 韓國輸出品目的 多樣性을 示唆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韓國이 多種 1次產品輸出國으로서의 特徵을 지니고 있음을 意味하며 아울러 主力輸出商品이 存在하지 않음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 樣相은 1955~1956 年間에 특히 顯著한데 이는 곧 1950~1953 年에 亘한 韓國動亂으로 因한 安定的基調의 破壞가 產業은 勿論 輸出資源의 開發를 停滯시켰음을 反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57 年度以後로는 重石, 鐵礦을 為始한 礦產資源이 開發되어 輸出品目化하게 되었으며 亦是 同年부터 工產品인 編織物이 輸出되기 始作하였다. 1959 年부터는 豚, 算, 薄荷腦와 丸, 人蔘精, 單合板等의 輸出資源이 開發되어 輸出됨으로써 主力商品화의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1955 年을 前後하여 輸出資源으로서 開發되어 왔던 主要品目을 보면 生絲, 鮮魚介類, 乾魚介類, 黑鉛, 無煙炭, 寒天, 豚毛, 金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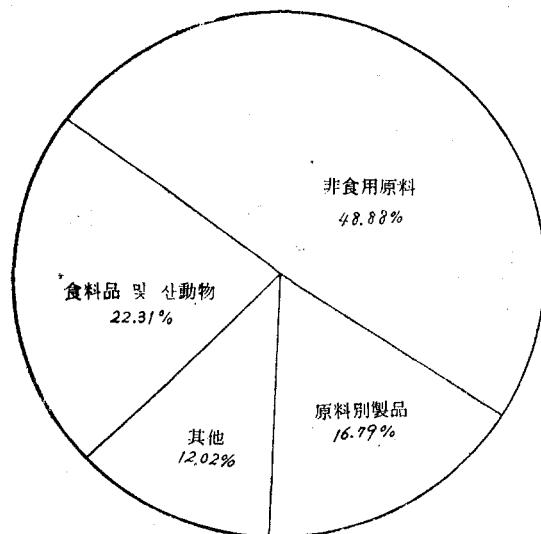
輸出構成比의 70% 内外를 占하는 構成比重이 1%以上의 品目은 可謂 韓國의 潛在的主力輸出商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品目的 輸出可能性의 長期的考察은 韓國에 있어서의 輸出產業育成의 方向을 示唆하는 資料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63 年以後로 이러한 主力輸出商品의 構成比가 오히려 減縮된 까닭은 1961 年以來의 所謂 輸出促進運動(export drive)의 結果 韓國輸出商品構造의 多樣性이 더욱 深化된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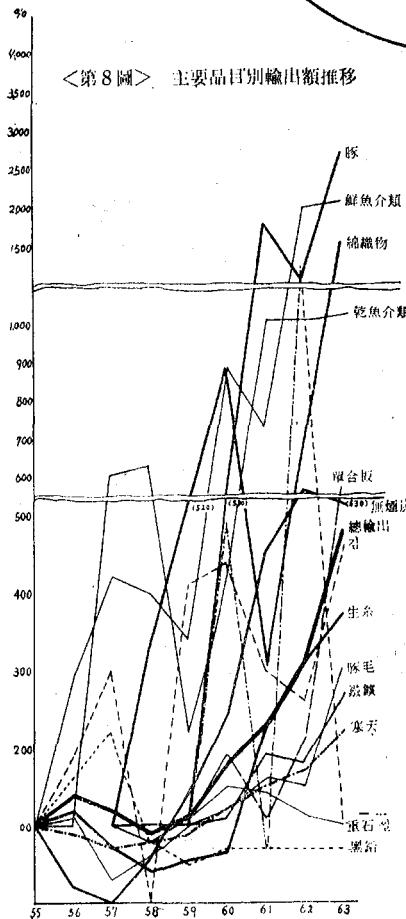
(13) 1955年度에 輸出實績이 없는 品目的 경우에는 輸出實績이 있었던 第 1 次輸出年度를 基準으로 하였음.

(14) 無實績年間이 있는 品目的 경우에는 輸出實績年數로 除하여 年平均輸出實績을 求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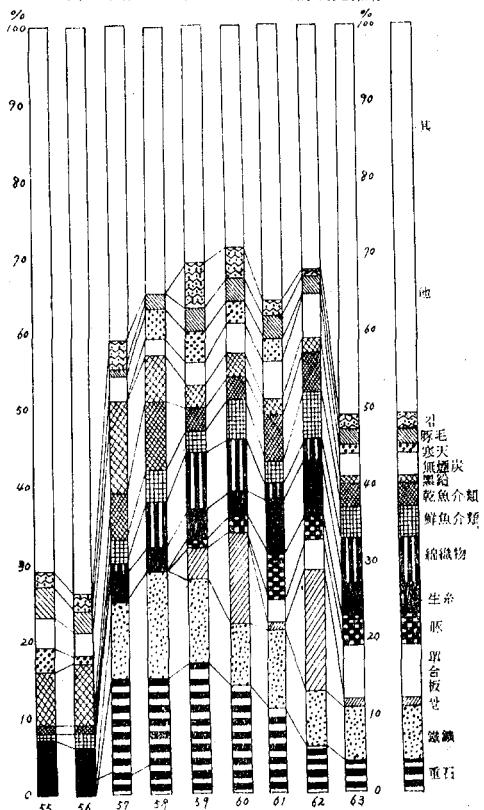
<第7圖> 類別商品 輸出額 (1955~1963 平均)



<第8圖> 主要品目別輸出額推移



<第9圖> 主要品目別輸出構成比推移



&lt;第18表&gt; 主要品目別

年 度 品 目		1955	1956	1957	1958
0130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豚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0311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175 100.00 — 0.97	512 292.57 + 92.57 2.08	742 424.00 + 44.92 3.34	707 404.00 — 4.72 4.30
鮮魚介類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232 100.00 — 1.29	238 102.59 + 2.59 0.97	1,393 600.43 + 485.29 6.27	1,450 625.00 + 4.09 8.81
乾魚介類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031・21~91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51 100 — 0.28	98 192.16 + 92.16 0.40	38 74.51 — 61.22 0.17	78 152.94 + 105.26 0.47
貝類與軟體動物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032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1 100 — 0.006	— — — —	6 600 + 500.00 0.003	20 2,000 + 233.33 0.10
魚介類 (종조류)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042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0 0 0	— — —	0 0 0
筍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051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12 100.00 — 0.07	61 508.33 + 408.33 0.25	202 1,683.33 + 321.15 0.91	102 850.00 — 49.50 0.62
鮮果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05421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291 100.00 — 1.62	— — — —	— — — —	— — — —
小豆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05485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294 100.00 — 1.64	565 192.18 + 92.18 2.30	885 301.02 + 56.64 3.99	39 3.26 — 95.59 0.24
김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212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366 100.00 — 2.04	144 39.34 — 60.66 0.59	101 27.57 — 29.86 0.46	89 24.31 — 11.89 0.54
毛皮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244012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215 100.00 — 1.20	252 117.22 + 17.22 1.03	346 160.93 + 37.30 1.56	212 98.61 — 38.73 1.29
樹皮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2612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354 100.00 — 1.97	536 151.41 + 51.41 2.18	621 175.42 + 15.86 2.80	157 44.35 — 74.72 0.95
副蠶絲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261310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1,275 100.00 — 7.10	1,560 122.35 + 22.35 6.34	927 72.71 — 40.58 4.18	548 42.98 — 40.88 3.33
生絲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265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107 100.00 — 0.60	227 212.14 + 112.14 0.92	63 58.88 — 72.25 0.28	140 130.84 + 122.22 0.85
植物性纖維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2657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206 100.00 — 1.15	425 206.31 + 106.31 1.73	184 89.32 — 56.71 0.83	83 40.29 — 54.89 0.51
織物屑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	— — —

## 輸 出 實 績 (1955~1963) (其 1)

(單位 : 1,000 美弗)

1959	1960	1961	1962	1963	平均
134	711	2,464	1,474	3,676	1,692
100.00	530.60	1,838.79	1,100.00	2,743.27	—
—	+430.60	+246.55	-40.18	+149.39	—
0.68	2.17	6.03	2.69	4.24	6.56
602	1,560	1,274	3,446	3,698	1,413
344.00	891.43	728.00	1,969.14	2,113.14	—
-14.85	+159.14	-18.33	+170.49	+7.31	—
3.04	4.75	3.12	6.29	4.26	4.72
516	982	2,502	2,485	2,729	1,392
222.41	423.28	1,078.45	1,071.12	1,176.29	—
-64.41	+90.31	+154.79	-0.68	+9.82	—
2.61	2.99	6.12	4.53	3.14	4.65
86	147	172	1,814	2,199	520
168.63	288.24	337.25	355.69	431.18	—
+10.26	+70.93	+17.01	+954.65	+21.22	—
0.43	0.45	0.42	3.31	2.53	1.74
22	28	65	262	364	96
2,200	2,800	6,500	26,200	36,400	—
+10.00	+27.27	+132.14	+303.08	+38.93	—
0.11	0.09	0.16	0.48	0.42	0.32
775	3,763	507	8,925	776	2,107
100	485.55	65.42	1,151.61	100.13	—
—	+385.55	-86.53	+1,660.36	-91.31	—
3.91	11.46	1.24	16.28	0.89	7.05
65	75	58	186	279	116
541.67	625.00	483.33	1,550.00	2,325.00	—
-36.27	+53.85	-22.27	+220.69	+50.00	—
0.33	0.23	0.14	0.34	0.32	0.39
570	17	305	99	71	226
195.88	5.84	104.81	34.02	24.40	—
+95.88	-97.57	+1,694.11	-67.54	-28.28	—
2.88	0.05	0.75	0.18	0.08	0.76
1,191	1,288	893	749	1,337	805
405.10	438.10	303.74	254.76	454.76	—
+2,953.84	+8.14	-30.67	-16.13	+78.50	—
6.01	3.92	2.19	1.37	1.54	2.69
132	140	99	136	105	146
30.07	38.25	27.05	37.16	28.63	—
+48.32	+6.06	-29.29	+37.37	22.79	—
0.67	0.43	0.24	0.25	0.12	0.49
178	387	91	117	84	209
82.79	180.00	42.33	54.42	39.07	—
-16.04	+117.42	-76.49	+28.57	-28.20	—
0.90	1.18	0.22	0.21	0.10	0.70
244	357	297	286	447	367
68.93	100.85	83.90	80.79	126.27	—
+55.41	+46.31	-16.81	-3.70	+56.29	—
1.23	1.09	0.73	0.52	0.52	1.23
744	981	2,849	3,962	4,662	1,945
58.35	76.94	223.45	310.75	365.65	—
+35.77	+31.86	+190.42	+39.07	+17.67	—
3.76	2.99	6.97	7.23	5.37	6.53
27	40	209	5	5	91
25.23	37.38	195.33	4.67	4.67	—
-98.07	+48.15	+422.50	-97.61	0	—
0.14	0.12	0.51	0.01	0.006	0.30
18	40	34	51	98	127
8.74	19.42	16.50	24.76	47.57	—
-78.31	+122.22	-15.00	+50.00	+92.16	—
0.09	0.12	0.08	0.09	0.11	0.42

&lt;第18表&gt; 主 要 品 自 別

年 度 品 目		1955	1956	1957	1958
273•1	輸出實績比 石材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95 100.00 — 0.53	113 118.95 + 18.95 0.46	57 60.00 - 49.56 0.26	53 55.79 - 7.02 0.32
276212	輸出實績比 高嶺土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98 100.00 — 0.55	111 113.27 + 13.27 0.45	142 144.90 + 27.93 0.64	150 153.06 + 5.63 0.91
2762212	輸出實績比 黑鉛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1,224 100.00 — 6.81	1,941 158.58 + 58.58 7.89	2,670 218.14 + 37.56 12.03	1,033 84.40 - 61.31 6.27
276•541	輸出實績比 螢石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272 100.00 — 1.51	281 103.31 + 3.31 1.14	235 86.40 - 16.37 1.06	254 93.38 + 8.09 1.54
276•93	輸出實績比 重晶石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21 100.00 — 0.12	16 76.19 - 23.81 0.01	23 109.52 + 43.75 0.01	6 28.57 - 73.91 0.04
276•950	輸出實績比 스티어타이트와탈크(滑石)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248 100.00 — 1.38	144 58.07 - 41.83 0.59	134 54.03 - 6.94 0.60	314 126.61 + 134.33 1.91
281	輸出實績比 鐵鑄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2,193 100.00 — 9.88	2,225 101.46 + 1.46 13.53
2833	輸出實績比 보오크사 아트밀엔 미금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27 100.00 — 0.01	62 229.63 + 129.63 0.38
2834	輸出實績比 鉛鑄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519 100.00 — 2.34	408 78.61 - 21.39 2.48
2835	輸出實績比 亞鉛鑄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19 100.00 — 0.01	— — — —
2837	輸出實績比 맹거니즈鑄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129 100.00 — 0.58	3 2.33 - 97.67 0.02
2839	輸出實績比 卑金屬鑄 (別掲以外)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275 100.00 — 1.24	180 65.46 - 34.54 1.09
28392	輸出實績比 重石鑄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 — — —	— — — —	3,211 100.00 — 14.46	2,453 76.39 - 23.61 14.91
2911	輸出實績比 獸骨 (粉)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98 100.00 — 0.55	116 118.37 + 18.37 0.47	145 147.96 + 25.00 0.65	140 142.86 - 3.45 0.85
291921	輸出實績比 豚毛 年對前年比增減率 構成比	667 100.00 — 3.71	756 113.34 + 13.34 3.07	199 29.84 - 73.68 0.90	373 55.92 + 87.44 2.27

## 輸出實績 (1955~1963) (其 2)

(單位: 1,000 美弗)

1959	1960	1961	1962	1963	平均
91	176	36	0	29	72
95.80	185.27	37.90	0	30.54	—
-71.70	+93.41	-79.54	0	-19.44	—
0.46	0.54	0.09	0	0.03	0.25
110	246	209	137	271	164
112.25	251.02	213.27	139.80	276.53	—
-26.67	+123.64	-15.04	-34.45	+97.81	—
0.56	0.75	0.51	0.25	0.31	0.55
626	827	848	834	863	1,207
51.14	67.57	69.28	68.14	70.51	—
-39.40	+32.10	+2.54	-1.65	+3.48	—
3.16	2.52	2.08	1.52	0.99	4.04
389	754	688	567	777	469
143.02	277.21	252.94	208.46	285.66	—
+53.15	+93.83	-8.75	-17.59	+37.04	—
1.96	2.30	1.68	1.03	0.90	1.57
21	9	17	16	37	18
100.00	42.86	80.95	76.19	176.19	—
+250.00	-57.14	+88.89	-5.88	+131.25	—
0.11	0.03	0.04	0.03	0.04	0.06
428	220	361	462	551	318
172.58	88.71	145.56	186.29	222.18	—
+36.31	-48.60	+64.09	+27.98	+19.26	—
2.16	0.67	0.88	0.84	0.64	1.06
2,178	2,463	4,252	3,849	5,912	3,296
99.32	112.31	193.89	175.51	269.59	—
-2.11	+13.09	+72.64	-9.48	+53.60	—
11.00	7.50	10.40	7.02	6.81	11.00
88	34	24	27	1	38
325.93	125.93	88.89	100.00	3.70	—
+41.94	-61.36	-29.41	+25.00	-99.63	—
0.44	0.10	0.06	0.05	0.001	0.13
171	176	223	152	518	310
32.95	33.91	42.97	29.29	99.81	—
-58.09	+2.92	+26.71	-31.84	+240.79	—
0.86	0.54	0.55	0.28	0.60	1.03
—	53	25	27	90	43
—	278.94	131.58	142.11	473.68	—
—	+178.94	-52.83	+8.00	+233.33	—
—	0.16	0.06	0.05	0.10	0.14
14	5	14	—	—	33
10.85	3.88	10.85	—	—	—
+366.67	-64.29	+180.00	—	—	—
0.07	0.02	0.03	—	—	0.11
148	267	118	416	779	311
53.82	97.09	42.91	151.27	283.27	—
-17.78	+80.41	-55.80	+252.54	+87.26	—
0.75	0.81	0.29	0.76	0.90	1.04
3,397	4,701	4,498	3,374	3,075	3,530
105.79	146.40	140.08	105.08	95.77	—
+38.48	+38.39	-4.32	-24.99	-8.86	—
17.15	14.32	11.00	6.16	3.54	11.80
66	137	41	114	104	106
67.35	139.80	41.84	116.23	106.12	—
-52.86	+107.58	-70.07	+178.05	-8.77	—
0.33	0.42	0.10	0.21	0.12	0.35
630	807	1,070	987	2,027	835
94.45	120.99	160.42	147.98	303.90	—
+68.90	+28.10	+32.59	-7.76	+105.37	—
3.18	2.46	2.62	1.80	2.34	2.79

&lt;第18表&gt; 主要品目別

年 度		1955	1956	1957	1958
29212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五倍子構成	15 100.00 — 0.08	62 413.33 +313.33 0.25	78 520.00 + 25.80 0.35	54 360.00 — 30.79 0.33
29242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人蔴構成	249 100.00 — 1.39	640 257.03 +157.03 2.60	851 341.77 + 32.97 3.83	206 82.73 — 75.79 1.25
292911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寒天構成	781 100.00 — 4.35	725 92.83 — 71.7 2.95	570 72.98 + 21.38 2.57	584 74.78 + 2.46 3.55
292.9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植物性原 材料(別揭以外)構成	217 100.00 — 1.21	432 199.08 + 99.08 1.76	101 46.54 — 76.62 0.46	41 18.89 — 59.41 0.25
292.99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海藻類(非食用)構成	522 100.00 — 2.91	441 84.48 — 15.52 1.79	346 66.28 — 21.54 1.56	397 76.05 + 14.73 2.41
321.411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無煙炭構成	488 100.00 — 2.72	0 0 0	— — —	297 60.86 — 39.14 1.81
41113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肝油構成	29 100.00 — 0.16	45 155.17 + 55.17 0.18	32 110.35 — 28.89 0.14	152 524.14 + 375.00 0.92
512232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薄荷腦外丸構成	— — — —	— — — —	— — — —	— — — —
541723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人蔴精構成	— — — —	— — — —	— — — —	— — — —
631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單合板構成	— — — —	— — — —	— — — —	— — — —
652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綿織物構成	0 0 0 0	0 0 0 0	276 100.00 — 1.24	899 325.73 + 225.73 5.47
667331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水晶構成	25 100.00 — 0.14	65 260.00 +160.00 0.26	31 124.00 — 52.31 0.13	124 496.00 + 300.00 0.75
689.5	輸出實績比 年對前年比增減率 蒼鉛構成	416 100.00 — 2.32	747 179.57 79.57 3.04	557 133.89 — 25.43 2.51	439 105.53 — 21.18 2.67
總計	輸出總額 構成比計	17,966 100.00	24,595 100.00	22,202 100.00	16,451 100.00

註：前年度無實績인 경우는 前前年度에 對比하여 計算하였음。四捨五入關係로 合計에 若干의 誤  
輸出實績의 경우 一. 無實績, 0 單位未滿, .. 未詳을 意味함。

(資料源：韓國銀行調查部，經濟統計年報，1960, p.216, 1961, p.164, 1962, p. 186, 1963, p.

## 輸 出 實 積 (1955~1963) (其 3)

(單位 : 1,000美弗)

1959	1960	1961	1962	1963	平 均
52 346.67 +3.70 0.26	235 1,566.67 +351.92 0.72	135 900.00 -42.55 0.33	26 173.33 -80.74 0.05	85 566.67 +226.92 0.10	82 — — 0.27
72 28.92 -65.05 0.36	114 45.78 +58.33 0.35	196 78.72 +71.92 0.48	159 63.86 -18.88 0.29	430 172.69 +170.44 0.50	324 — — 1.08
717 91.81 +22.77 3.62	927 118.69 +29.29 2.82	1,142 146.22 +23.19 2.79	1,322 169.27 +15.76 2.41	1,739 222.66 +31.54 2.00	945 — — 3.16
90 41.48 +119.51 0.45	263 121.20 +192.22 0.80	825 380.18 +213.69 2.02	664 305.99 -19.52 1.21	1,341 617.97 +101.96 1.55	442 — — 1.48
270 51.72 -31.99 1.36	612 117.24 +126.67 1.86	381 72.98 -37.75 0.93	367 70.30 -3.67 0.67	699 133.90 +90.46 0.81	448 — — 1.50
657 134.63 +121.21 3.32	1,147 235.04 +74.58 3.49	2,209 452.66 +92.59 5.40	2,740 561.48 +24.04 5.00	2,578 528.28 -5.91 2.97	1,021 — — 3.80
171 589.66 +11.25 0.86	190 655.17 +11.11 0.58	114 393.10 -40.00 0.28	39 134.48 -65.79 0.07	0 0 0 0	86 — — 0.29
3 100 — 0.02	94 313.33 +213.33 0.29	166 353.33 +76.60 0.41	65 216.67 -60.84 0.12	0.98 993.33 +358.46 0.34	125 — — 0.42
29 100 — 0.15	205 706.90 +606.90 0.63	213 734.48 +3.90 0.52	42 144.83 -80.28 0.08	48 165.52 +14.29 0.06	107 — — 0.36
11 100 — 0.06	21 190.91 +90.91 0.06	1,217 11,063.55 +4,795.24 2.98	2,289 20,809.09 +88.09 4.18	6,313 57,390.91 +175.80 7.27	1,970 — — 6.59
1,425 516.30 +58.51 7.19	2,443 885.15 +71.44 7.44	857 310.51 -64.92 2.10	1,834 664.49 +114.00 3.35	4,289 1,553.99 +133.86 4.94	1,718 — — 5.74
122 488.00 -1.61 0.62	58 232.00 -52.46 0.18	35 140.00 -39.66 0.07	25 100.00 -28.57 0.05	156 624.00 +524.00 0.02	71 — — 0.24
260 62.50 -40.74 1.31	334 80.29 +28.46 1.02	218 52.40 -34.73 0.53	.. .. .. ..	.. .. .. ..	424
19,812	32,827	40,878	54,813	86,80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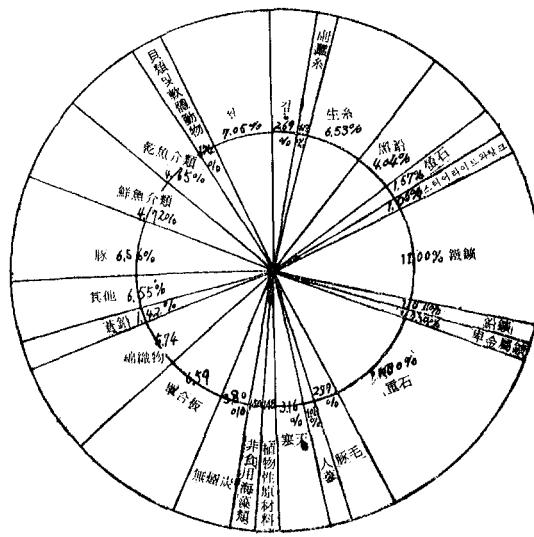
差가 있음. \* 資料源의 未備로 이 品目만 若干 過大評價되었음. 以下同

라 생각된다. 换言하면 이러한 輸出促進運動에 의하여 主力商品의 輸出이 增大되었다가 보다 所謂 試驗的輸出段階에서와 같이 平面的으로 短期的輸出可能性을 求아 多樣한 品目의 少量輸出이 이루어진 까닭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盲目的試驗輸出促進의 強行은 既存輸出資源이 大規模開發을 통하여 特化輸出產業으로서의 長期的發展을 成遂할 수 있는 可能性을 看過하기 쉽게 하는 一要因이 될 수 있으며 反面, 輸出品目的 多樣化는 未開發輸出資源의 開發可能性을 示唆하는 것이므로 品目別로 長期的輸出可能性을 檢討하는 作業의 重要性은 不問可知의 事實인 것이다.<sup>(15)</sup>

輸出年間年平均構成比順位에 따르면, 重石, 鐵鑛, 煤, 單合板, 豚, 生絲, 編織物, 鮮魚介類, 乾魚介類, 黑鉛, 無煙炭, 寒天, 豚毛, 金, 貝類 및 軟體動物, 蠻石, 非食用海藻類, 植物性原材料, 蒼鉛副蠶絲, 人蔘, 스티어타이트와 탈크, 鉛鑛 및 卑金屬鑛의 順位로 되어 있다. 最高品目은 重石으로서 11.80%이며 다음이 鐵鑛으로서 11.00%, 煤 7.05% 單合板 6.59%, 豚 6.56%, 生絲 6.53% 등으로 되어 있다. (第10圖 參照)

<第10圖> 主要品目別年平均 輸出構成比(1955~1963)



第2次產品의 그 것은 平均 4.71%에 不過한 것이다.

第2次產品의 輸出은 1957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主力輸出商品으로 登場하였는데 累年 輸出比重이 上昇하여 1963年에는 20.61%로 著增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提高된 水準의 長期的持續의 可能與否는 品目別로 長期的輸出可能性을 檢討하여 본 然後에 라야만 可

輸出年間年平均輸出構成比가 1%以上을 占하는 所謂 主力輸出商品構造의 變遷을 考察하면 第19表와 같다. 이에서 미루어 볼때 韓國輸出商品構造의 低位性이 顯著히 드러나고 있다. 즉 1955~1956年間엔 第2次產品의 輸出은 皆無하였고 그 以後로도 輸出比重은 1963年을 除外하고는 10%에도 未及하다.

이러한 事實은 곧 韓國의 主力商品構造의 低位性을 示唆하는 것으로서 第1次產品輸出國으로서의 面貌를 如實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主力輸出商品中第1次產品의 比重은 平均 92.59%이 나

(15) 嚴密한 作業進行을 위하여 應當 全輸出品目 및 輸出可能品目에 대한 이의한 檢討가 行하여져야 할 것이다. 現時點에서는 第18表以上으로 細分된 品目別時系列資料의 求得이 困難하므로 本稿에서는 主力輸出商品에 限定하여 作業을 進行시키고, 其他品目 및 輸出可能品目에 대해서는 次後로 미루기로 한다.

〈第19表〉 主力輸出商品의 構造別推移 (単位: %)

區 分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第 1 次 產 品	農 產 品	豚, 猪, 副鱷魚, 生絲, 豚毛, 人蔘, 植物性原材	15.38	15.95	12.17	8.05	13.57	21.32	20.09	26.72	15.41
	水 產 品	鮮魚介類, 乾魚介類, 貝類與軟體動物, 寒天, 冻, 非食用海藻類	11.44	10.49	17.90	19.78	17.07	16.79	15.57	18.58	14.28
	礦 產 品	重石, 無煙炭, 蒼鉛, 驗鉛, 蟹石, 鐵礦, 重石鉛礦, 卑金屬礦 스마이트와 탐	14.74	13.11	44.15	46.21	41.67	33.17	32.82	22.61	17.35
	計	41.56 100	39.55 100	74.22 98.36	74.04 91.08	72.31 90.89	71.28 90.48	68.48 93.09	67.91 90.02	47.04 79.39	
第 2 次 產 品	單合板, 綿織物	— 0	— 0	1.24 1.64	5.47 8.92	7.25 9.11	7.50 9.52	5.08 6.91	7.53 9.98	12.21 20.61	
	總 計	41.56 100	39.55 100	75.46 100	81.29 100	79.56 100	78.78 100	73.56 100	75.44 100	59.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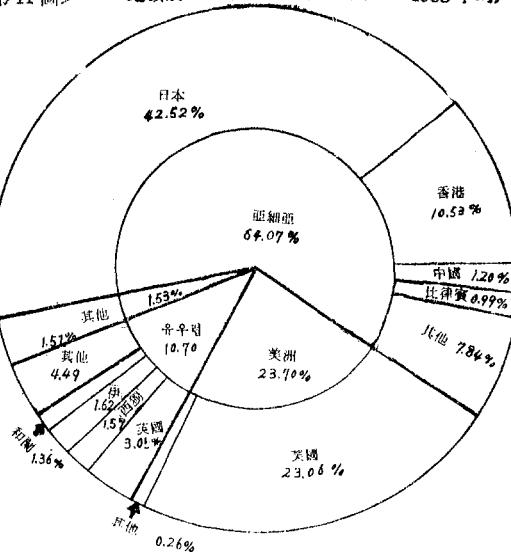
(資料源：第18表에 의 함).

能할 것이다.

### 3. 輸出地域構造

韓國輸出의 地域構造는 第 20 表와  
같으며 1955~1963 年間平均值<sup>(16)</sup>로서  
이의 構成比를 圖示한다면 第 11 圖  
와 같다. 이에서 볼때 韓國의 輸出地  
域構造는 對亞細亞貿易이 過半을 占  
하여 63.85%이고 다음이 美州로서  
23.46%를 占하고 있다. 그려므로 對  
亞細亞 및 美洲輸出이 總輸出의 87.31  
%가 되고 있다. 그리고 對유럽貿易  
은 11.20%이며 나머지는 其他이다.  
이에서 韓國의 輸出地域構造는 亞細  
아와 美洲에 偏倚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輸出市場構造의 多角

〈第 11 圖〉 地域別 主要國別輸出額 (1955~1963 平均)



(16) 註(14)와 같음.

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各地域別輸出額의 推移를 보면 第 12 圖와 같다. 이에서 미루어 볼때 對亞細亞輸出은 19

&lt;第 20 表&gt; 輸 出 地 域

區 分			1955	1956	1957	1958
아	中 國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129 100.00 0.72	228 176.74 0.93	269 208.53 1.21	114 88.37 0.69
	香 港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1,852 100.00 10.31	1,934 104.43 7.86	3,821 206.32 17.21	1,274 68.79 7.74
	日 本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7,253 100.00 40.37	8,146 112.31 33.12	10,820 149.18 48.73	9,778 134.81 59.44
세	比 律 賓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1 100.00 0.006	5 500.00 0.02	67 6,700.00 0.30	10 1,000.00 0.06
	성 가 풀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5 100.00 0.03	32 640.00 0.13	101 2,020.00 0.46	30 600.00 0.18
	泰 國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1 100.00 0.006	1 100.00 0.004	10 1,000.00 0.04	108 10,800.00 0.66
洲	其 他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3 100.00 0.02	10 333.33 0.04	48 1,599.98 0.22	47 1566.67 0.29
	計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9,244 100.00 51.45	10,356 112.03 42.11	1,5,136 163.74 68.17	11,361 122.90 69.06
	白 耳 義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22 100.00 0.12	6 27.27 0.24	31 140.91 0.14	1,150 5227.33 6.99
유	丁 抹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0 0 0	— — —	1 100.00 0.004	6 600.00 0.04
	佛 蘭 西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7 100.00 0.04	1,270 18,143.22 5.16	759 1,084.31 3.42	45 642.87 0.27
	西 獨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323 100.00 1.80	399 123.53 1.62	586 1,814.26 2.64	93 287.93 0.57
це	伊 太 利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86 100.00 0.48	299 347.67 1.22	264 306.98 1.19	135 156.98 0.82
	和 蘭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586 100.00 3.26	421 71.84 1.71	161 27.47 0.73	68 11.60 0.41
	瑞 典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182 100.00 1.01	34 81.68 0.14	138 75.82 0.02	15 8.24 0.09
유	瑞 西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 — —	1 100.00 0.004	242 24,200.00 1.09	68 6,800.00 0.41
우	英 國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120 100.00 0.67	895 745.83 3.64	760 633.33 3.42	645 537.50 3.92
це	其 他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12 100.00 0.07	1 8.33 0.004	2 16.66 0.008	2 16.66 0.01
洲	計	輸 出 額 年 變 動 比 構 成 比	1,338 100.00 7.45	3,326 248.58 13.52	2,944 220.03 13.26	2,227 166.44 13.54

56~1958 年間의 一般的下降期에도 不拘하고 꾸준히 1955 年의 水準을 上廻하여 安定의  
으로 成長하고 있음을 示顯하고 있으며 對유우입輸出도 1956~1958 年間 및 1959~1960 年

別 輸 出 額 (1955~1963) (其 1)

(單位 : 1,000 美弗)

1959	1960	1961	1962	1963	平 均
127	384	530	1,354	722	429
98.45	297.67	410.85	1,049.61	559.69	—
0.64	2.17	1.30	2.47	0.83	1.20
1,032	2,726	7,385	4,682	9,120	3,758
55.72	147.19	398.76	252.81	492.44	—
5.21	8.30	18.07	8.54	5.07	10.53
12,680	20,175	19,397	23,483	24,841	15,175
174.82	278.15	267.43	323.76	342.48	—
64.00	61.46	47.45	42.84	28.62	42.52
—	25	139	321	2,596	352
—	2,500.00	13,900.00	32,100.00	259,600.00	—
—	0.08	0.34	0.59	2.99	0.99
112	435	507	415	666	256
2,240.00	87,000.00	101,400.00	83,000.00	133,200.00	—
0.57	1.33	1.24	0.76	0.77	0.72
41	89	242	405	1,582	275
4,100.00	8,900.00	24,200.00	40,500.00	158,200.00	—
0.21	0.27	0.59	0.74	1.82	0.77
784	48	216	5,045	14,210	2,268
26,133.07	1,599.98.00	71,999.28	168,164.99	4,736,619.30	—
3.96	0.15	0.53	9.20	16.37	6.35
14,776	23,882	28,416	35,704	53,737	22,512
159.84	258.35	307.40	386.24	581.32	—
74.58	72.75	69.51	65.14	61.91	64.07
76	1,657	18	251	339	394
345.46	7,531.89	81.82	1,140.92	1,540.93	—
0.39	5.05	0.04	0.46	0.39	1.10
12	4	28	80	38	19
1,200.00	400.00	2,800.00	8,000.00	3,800.00	—
0.06	0.01	0.07	0.15	0.04	0.05
26	7	36	974	538	407
371.44	100.00	514.30	13,914.56	7,685.87	—
0.13	0.02	0.09	1.78	0.62	1.14
494	632	981	244	1,275	559
1,529.42	1,956.67	3,037.21	75.54	3,947.40	—
2.49	1.93	2.40	0.45	1.47	1.57
10	5	615	1,972	1,810	577
11.63	5.81	715.11	2,293.04	2,104.67	—
0.05	0.02	1.51	3.60	2.09	1.62
762	15	23	723	1,599	484
130.04	2.56	3.92	123.38	172.87	—
3.85	0.05	0.06	1.32	1.84	1.36
—	—	3	228	428	114
—	—	1.65	125.27	235.16	—
—	—	0.01	0.42	0.49	0.32
3	88	65	0	13	53
300.00	8,800.00	6,500.00	0	1,300.00	—
0.02	0.27	0.16	0	0.02	0.15
858	1,889	1,421	1,632	1,587	1,090
715.00	1,574.16	1,184.16	1,359.99	1,222.49	—
4.33	5.75	3.48	2.98	1.84	3.05
7	3	59	188	281	617
58.31	24,998	481.47	1,566.66	2,341.66	—
0.04	0.009	0.14	0.34	0.32	1.73
2,253	4,300	3,249	6,298	7,908	3,760
32.38	221.38	242.83	470.70	591.03	—
11.37	13.10	7.95	11.49	9.11	10.70

&lt;第 20 表&gt; 輸 出 地 域

區 分		1 9 5 5	5 6	5 7	5 8	
美 洲	加奈陀	輸出額 年變動比 構成比	13 100.00 0.07	1 7.69 0.04	23 176.92 0.10	1 7.69 0.006
	美 國	輸出額 年變動比 構成比	7,361 100.00 40.97	10,912 148.24 44.37	4,094 55.96 18.44	2,859 38.85 17.38
	其 他	輸出額 年變動比 構成比	7 100.00 0.04	— — —	2 28.57 0.008	— — —
	計	輸出額 年變動比 構成比	7,381 100.00 41.08	10,913 147.85 44.37	4,119 55.81 18.55	2,860 38.75 17.39
大 洋 洲	輸出額 年變動比 構成比	2 — 0.01	— — —	2 — 0.008	3 — 0.02	
	阿弗利加洲	輸出額 年變動比 構成比	— — —	0 0 0	1 — 0.004	0 — 0
未 詳	輸出額 年變動比 構成比	— — —	— — —	— — —	— — —	
	總 計	輸出實績 年變動比 對前年增減比 構成比	17,966 100 — 100	24,595 136.90 +36.90 100	22,202 123.58 -9.73 100	16,451 91.57 -25.90 100

註：第 18 表 註參照

資料源：韓國銀行調查部 經濟統計年報，1960, p. 198, 1961, p. 168, 1962, p. 220.

間에 成長趨勢가 若干 鈍化되는 年間に 있기는 하나 1955 年水準을 複数 上廻하였으며 1963 年度에는 兩者 共히 約 5 倍의 規模로 擴大되고 있다. 그러나 對美洲輸出은 1956 年以來 1959 年까지 減縮되다가 1959 年 以後로 上昇趨勢를 나타내기 始作하여 1960 年代 以後에 이르러서야 1955 年의 水準을 上廻하여 다시 上昇氣勢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1963 年度에는 約 3 倍의 規模로 뒤에 擴大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서 미루어 1956~1959 年間의 輸出低調는 純全히 對美洲輸出의 激減에 의하여 白來된 것임을 類推할 수 있다.

構成比의 推移를 통하여 地域別 및 主要國別輸出額을 나타내면 第 13 및 第 14 圖와 같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對亞洲輸出은 1956 年 以後로 한層 더 그 依存度를 增大시켜 1956 年에는 最高水準에 이르러 74.58% 를 占하였으나 다시 下降趨勢를 나타내어 1963 年에는 61.91% 뒤에 占하지 못하였으나 于今 韓國輸出地域構造上 首位를 占하고 있다. 對유우럽輸出은 1956 年부터 一般的 輸出不振趨勢에도 不拘하고 增大하기 始作하여 1956~1960 年間엔 비록 1959 年의例外가 있긴 하나 平均 12.96% 의 水準을 維持하다가 1961~1963 年間엔 平均 9.50% 로 縮少되고 있다. 對美洲輸出은 1955~1956 年間엔 平均 42.73% 의 水準을 維持하다가 1957 年부터 激減하기 始作하였는데 1957~1961 年間엔 平均 14.83% 로 減縮되다가 1962~1963 年間엔 24.92% 로 若干 增大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955~1956 年間의 水準을 回復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增大趨勢를 示顯하고는 있다. 특히 1958 年

別 輸 出 額 (1955~1963) (其 2)

(單位 : 1,000 美弗)

1959	1960	1961	1962	1963	平 均
—	—	7	142	248	48
—	—	53.85	1,092.31	1,907.89	—
—	—	0.02	0.26	0.29	0.13
2,133	3,647	6,821	11,976	24,287	8,232
28.98	49.54	93.19	169.62	333.53	—
10.77	11.11	16.69	21.85	27.98	23.06
—	—	32	369	16	47
—	—	—	—	—	—
—	—	0.08	0.67	0.2	0.13
2,133	3,647	6,860	12,486	24,551	8,328
28.90	49.41	92.94	169.16	332.62	—
10.77	11.11	16.78	22.78	28.28	23.70
—	3	122	177	240	61
—	—	100.00	145.08	196.72	—
—	0.009	0.30	0.32	0.28	0.17
—	—	—	49	142	21
—	—	—	100.00	289.80	—
—	—	—	0.09	0.16	0.06
650	995	2,232	99	125	456
100.00	153.08	434.39	15.23	19.23	—
3.28	3.03	5.46	0.18	0.14	1.28
19,812	32,827	40,878	54,813	86,802	35,692
110.27	182.72	227.53	305.09	483.15	—
+20.43	+65.69	+24.53	+36.54	+58.36	—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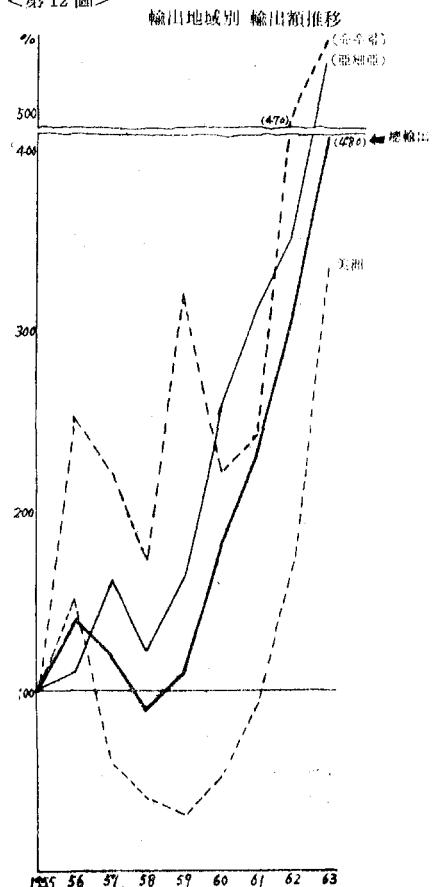
1963, p. 220, 1964, p. 216 에 의함.)

以後로 大洋洲, 阿弗利加洲, 其他 地域에의 輸出이 增大하고 있다는 것은 韓國輸出地域構造의 外延的擴大가 成遂되어 構造改善傾向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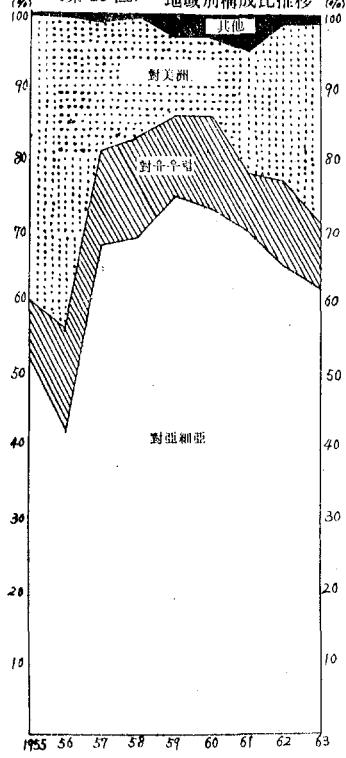
그런데 輸出地域構造의 過半을 占하는 對亞洲輸出도 地域的으로 널리 擴散되지 못하고 ECAFE 地域인 東南亞一帶가 主市場이 되고 있으며 그 中에서도 특히 對日本輸出이 全輸出의 平均 47.34 %, 對亞洲輸出의 無慮 67.41 %를 占하고 있음에 미루어 對亞洲輸出地域構造上에 있어서의 日本地域의 比重을 窺知할 수 있으며, 對亞洲輸出의 地域的制約性을 切實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對亞洲國家別輸出比重을 順位別로 보면 日本, 香港, 中國, 比律賓, 싱가풀, 泰國의 順으로 되어 있다. 對유우럽輸出에 있어서는 英國의 比重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西獨, 白耳義, 和蘭, 佛蘭西, 伊太利, 瑞西, 丁抹, 瑞典의 順位로 되어 있다. 輸出絕對額構成은 그다지 높지 못하나 市場構造가 地域的으로 多角化하여 있음이 對亞洲 및 美洲輸出과의 差異點이라 할 수 있다. 對美洲輸出도 對亞洲輸出의 경우와 같이 美國一邊倒의 偏倚的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즉 全輸出의 平均 23.28%를 占하는 對美輸出은 對美洲輸出의 無慮 98.85 %임을 示顯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對亞洲 및 對美洲輸出에 있어서 日本과 美國에의 輸出地域上의 偏倚的依存은 韓國輸出地域構造의 脆弱性을 端的으로 示唆한다. 즉 總輸出의 70.62 %를 占하는 兩國에의 偏重的依存은 兩國의 經濟變動이나 政治的, 社會的, 其他要因의 變動이 韓國輸出構造에

<第 12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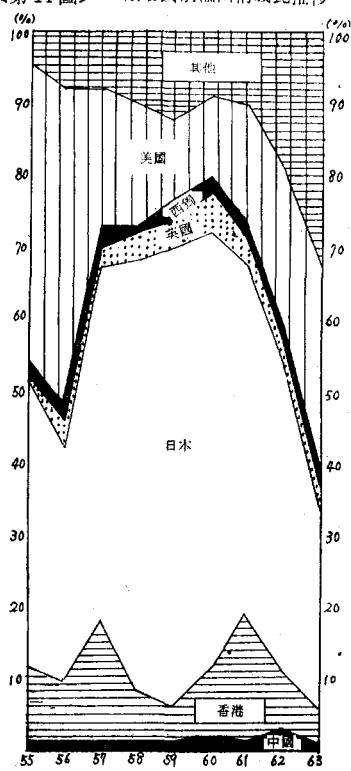


<第 13 圖> 地域別構成比推移



即刻의이며決定的의影響을波及할수있음을示唆하는것이다.이는곧韓國輸出市場構造의低位性을示唆하는것이긴하나,이와같은地域構造의不均衡相은1961年以來로漸次改善되어多角化에의傾向을示顯하고있다.즉第14圖에서보는바와같은主要國別輸出構成比의推移를보면1955~1957年間に全輸出의40.74%를占하였던日本地域의輸出은1958~1960年間に60.16%로擴大하였다가1961年以後로는漸減하여1962年엔42.84%로서1955年代의水準으로復歸하였다가1963年엔28.62%로低下하고있다.이는곧對日本輸出이1960年以後의輸出規模擴大에는그다지寄與하지않았음을示唆하는것이다.1955~1956年間に42.67%를占하여韓國輸出地域構造上에있어著大한比重을占하였던對美國輸出이1957~1961年間に14.87%로減縮되었다가1962~1963年間に上昇趨勢를나타내긴하였으나24.94%밖에回復하지못하여1955~1956年的水準보다17.73%나下廻하고있다.이에서마루어볼때近年에있어서의兩國에의輸出促進

&lt;第14圖&gt; 主要國別輸出構成比推移



彈力性은 그다지 높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兩國에의 偏重地域構造가 改善되어 多角地域構造에로의構造의變革이 進行中임을 示唆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61年以後로부터 別揭國家以外의 其他 地域에의 輸出이 激增함에 反하여 日本, 美國을爲始한 主要國家群에의 輸出은一般的으로 停滯的이거나 下降趨勢를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다.

地域別 및 主要國家別輸出額을 1955~1963 平均值<sup>(17)</sup>에 의하여 보면 第20表 平均欄과 같으며 이를 圖示하면 前揭 第11圖와 같다.

이에서 미루어 볼때前述한 바와 같은 傾向이 累年間 妥當하는 現象임을 是認할 수 있을 것 같다.

一般的으로 보아 經濟發展段階는前述한 바와 같이一國의 經濟運行의 樣態를 決定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그러므로 經濟發展段階를 指標로 輸出地域構造를 分析한다는 것은 有意義하며 또한 이를補完하는 意味에서 產業構造別地域構造를 把握分析하고 아울러 勞動賃金과 需要關聯意味를 示唆하는 1

人當國民所得別地域構造에 따른 輸出地域構造의 分析은 韓國輸出貿易構造의 把握뿐만 아니라 次後의 品目別研究에 貴重한 示唆를 提供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韓國輸出地域構造上 比較的으로 比重이 높은 主要國家를 經濟發展段階, 產業構造 및 1人當國民所得을 基準으로 分類集群化하고 이에 따른 地域別輸出趨勢를 表示하면 각각 第21表, 第22表 및 第23表와 같으며 1955年을 基準으로 한 年度別趨勢를 圖示하면 第15圖와 같으며 構成比推移는 第16圖와 같다.

第15圖에서 보건대 總輸出額指數가 上昇趨勢를 確固히 나타내기始作한 1959年以來로各地域에의 輸出成長趨勢도 若干의 時差가 있기는 하나 上昇傾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輸出促進活動이 最高潮에 達했던 1961年以來로는 모든 地域에의 輸出이 確固한 成長趨勢를 나타내고 있음에 미루어 趨勢傾向線의 延長을 통한 輸出增大의 可能性의把握을妥當視할수 있을 것 같다. 構成比의 推移面에서 먼저 經濟發展段階別로 보면 第1集群인 工業成長發展段階에 놓여있는 所謂 先進工業地域에의 輸出이 壓倒的이다. 이는勿論于今

(17) 註(14) 參照.

(18) 本稿 第1章 第2節 參照, 이의 詳論에 대하여는 赤松要, 前揭論文 參照.

工業開發段階에 놓여 있는 韓國의 從來의 主輸出品目이 1次產品中心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러나 1958年以來로 이러한 偏倚性은 漸次 改善되어 近年間에 工業開發段階地域, 單耕開發(monoculture) 및 初期開發段階地域과 其他地域의 輸出도 增大하고 있는데 이는 多種 1次產品中心의 偏重的輸出商品構造로부터 其他產品中心의 高度構造에로의 轉移過程換言하면 先進工業國以外의 地域에서 輸入하고자 하는 品目輸出에의 轉移過程을 示

&lt;第21表&gt; 經濟發展段階에

區 分	1955	1956	1957	1958	
1. 工業成長發展段階地域(美, 加, 英, 法, 德, 西獨, 和, 瑞典, 日本, 伊)大洋洲, 瑞西構成比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15,955 100.00 88.81	22,384 140.30 92.01	17,881 112.07 80.53	14,866 93.18 90.37
2. 工業開發段階地域(香, 中, 比)構成比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1,982 100.00 11.03	2,167 109.33 9.81	4,157 209.74 18.72	1,398 70.54 8.50
3. 單耕開發 및 初期開發段階地域(印, 加, 泰)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6 100.00 0.03	33 550.00 0.13	111 1,850.00 0.50	138 2,300.00 0.84
其 他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22 100.00 0.12	11 50.00 0.04	53 240.91 0.24	49 222.73 0.30
計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17,966 100 100	24,595 136.90 100	22,202 123.58 100	16,451 91.57 100

註: ① 四捨五入關係로 合計에 若干의 誤差가 있음.

② 資本自然集的高度發展, 資本技術集約的高度發展 및 工業成長段階地域을 包括한 것임.  
(筆者가 編製하였음.)

&lt;第22表&gt; 產業構造에 따른

區 分	1955	1956	1957	1958	
1. 重化學工業地域: 國民所得 (不明時國民總生產: 以下同)上 占하는 製造工業比率 30%以 上, 重化學工業比率 50%以 上地域(英, 白, 佛, 西獨, 美, 日, 伊, 大洋洲)構成比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15,174 100.00 84.46	21,927 144.50 89.15	17,316 114.12 77.99	14,708 96.93 89.40
2. 輕工業地域: 國民所得上 는 製造工業比率이 30%以上 그中 重化學工業比率이 50%이 未滿인 地域(和, 瑞典, 瑞西, 싱가포르, 香港)構成比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2,625 100.00 14.61	2,422 92.27 10.85	4,463 170.10 20.10	1,455 55.43 8.84
3. 農工業地域: 國民所得上 는 製造工業比率이 20%以上 30%未滿으로 農業의 比率이 20%以上인 地域(加, 丁)構成比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13 100.00 0.07	1 7.69 0.004	24 184.62 0.11	7 53.85 0.04
4. 農業地域: 國民所得上 는 農業의 比率이 20%以上 으로서 上揭地域에 屬하지 는 地域(中, 比, 泰)構成比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131 100.00 0.73	234 178.63 0.95	346 264.12 1.56	232 177.10 1.41
其 他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22 100.00 0.12	11 50.00 0.04	53 240.91 0.24	49 222.73 0.30
計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17,966 100.00 100	24,595 136.90 100	22,202 123.58 100	16,451 91.57 100

註 四捨五入關係로 合計에 若干의 誤差가 있음.

(資料源: 日本通商產業省, 前揭書, p. 279, 第1—11表 및 本稿 第20表에 의해 筆者가 編

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事實은 產業構造別地域構造의 推移에서도 類似한 傾向을 看取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產業構造가 高度일수록 經濟發展段階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서 미루어 從來 產業構造가 高度化된 成長經濟段階의 地域을 中心으로 하여 農業中心의 產業構造를 가진 韓國의 輸出이 重點的으로 行하여져 紹音을 알 수 있다.

1人當國民所得에 따른 地域構造를 보면 이는 偏倚의 아니다. 그러나 年 \$ 700 以上의

#### 따른 地域別輸出推移

(單位 : 1,000 美弗)

1959	1960	1961	1962	1963	平均
17,059	28,122	29,536	41,886	57,342	27,226
106.92	176.26	185.12	262.53	359.40	—
86.10	85.67	72.25	76.42	66.06	77.46
1,159	3,135	8,054	6,357	12,438	4,539
58.48	108.17	406.36	320.74	627.55	—
5.85	9.55	19.70	11.60	14.33	12.91
153	524	749	820	2,248	2,854
2,550.00	8,733.33	12,483.33	13,666.67	37,466.67	—
0.77	1.60	1.83	1.50	2.60	1.51
1,441	1,046	2,539	5,750	14,774	2,854
6,550.00	4,754.55	11,540.91	26,136.36	67,154.55	—
7.27	3.18	6.21	10.49	17.02	8.12
19,812	32,827	40,878	54,813	86,802	35,149
110.27	182.72	227.53	305.09	483.15	—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源 : 日本通商產業省, 通商白書, 總論, 1962, p.296, 第 1~16 表 및 本稿 第 20 表에 의하여

#### 地域別輸出推移

(單位 : 1,000 美弗)

1959	1960	1961	1962	1963	平均
16,272	28,015	29,421	40,713	55,046	26,510
107.24	184.63	193.89	268.31	362.77	—
82.13	85.34	71.97	74.28	63.42	75.42
1,909	3,264	7,972	6,048	11,826	4,665
72.72	124.34	303.70	230.40	450.51	—
9.64	9.94	19.50	11.03	13.62	13.27
12	4	35	222	286	67
92.31	30.77	269.23	1,707.69	2,200.00	—
0.06	0.01	0.09	0.41	0.33	0.19
178	498	911	2,080	4,870	1,053
135.88	380.15	695.42	1,587.79	3,717.56	—
0.90	1.52	2.23	3.80	5.61	3.00
1,441	1,046	2,539	5,750	14,774	2,854
6,530.00	4,754.55	11,540.91	16,136.36	67,154.55	—
7.27	3.18	6.21	10.49	17.02	8.12
19,812	32,827	40,878	54,813	86,802	35,149
110.27	182.72	227.53	305.09	483.15	—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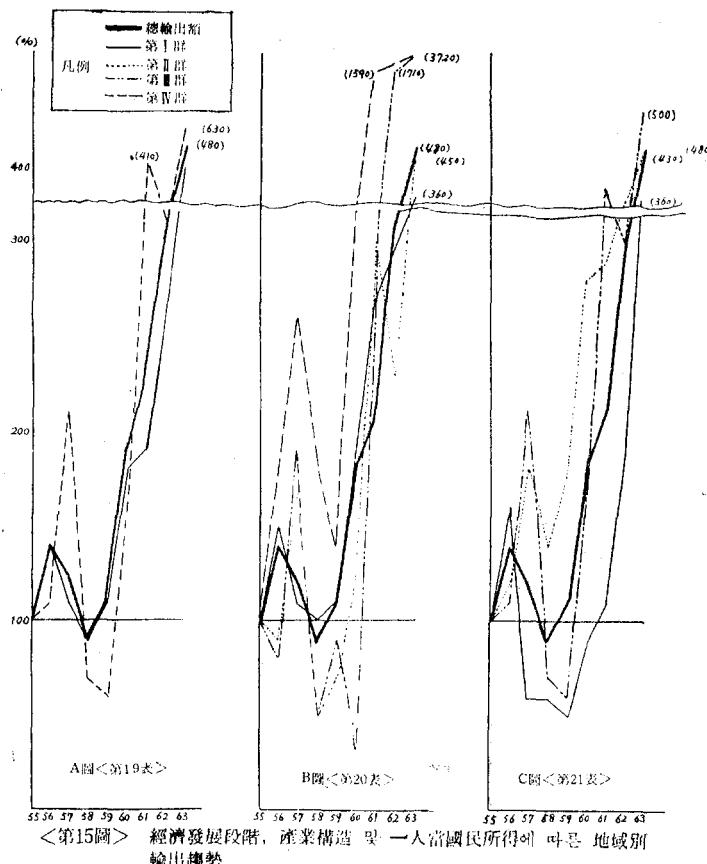
製訛였음.)

〈第23表〉 1人當國民所得에 따른

區 分	1955	1956	1957	1958
1. 高所得 地域(1人當國民所得 이 700弗以上의 地域: 美, 加, 輸出實績 英, 白, 丁, 佛, 西獨, 和, 瑞典, 年變動比 瑞西, 大洋洲) 構成比	8,616 100.00 47.96	13,939 161.78 57.67	5,195 60.30 23.40	4,953 57.49 30.11
2. 中所得 地域(1人當國民所得 이 100弗以上인 地域: 伊, 日, 年變動比 싱가폴, 比, 泰) 構成比	7,346 100.00 40.89	8,483 115.48 35.49	12,864 175.12 57.94	10,061 136.96 61.16
3. 低所得 地域(1人當國民所得 이 100弗未滿인 地域: 中, 香港) 構成比	1,981 100.00 11.03	2,162 109.14 9.79	4,090 206.46 18.42	1,388 70.07 8.43
其 他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22 100 0.12	11 50.00 0.04	53 240.91 0.24
計	輸出實績 年變動比 構成比	17,966 100 100	24,595 136.90 100	22,202 123.58 100
				16,451 91.57 100

註 四捨五入關係로 합계에若干의 誤差가 있음.

(資料源: 日本通商產業省, 前掲書, p. 283, 第1~13表 및 本稿 第20表에 의하여 筆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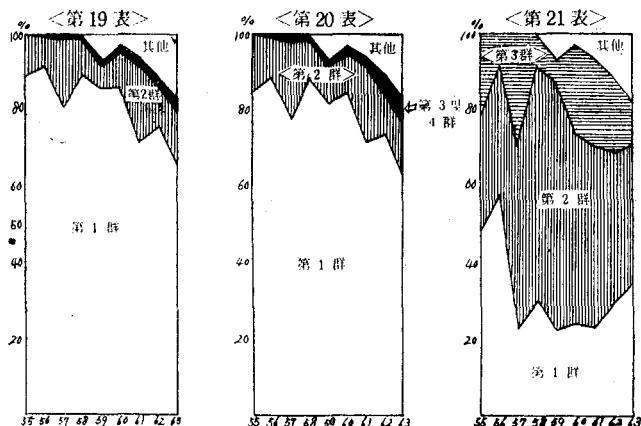


## 地域別輸出推移

(単位: 1,000美弗)

1959	1960	1961	1962	1963	平均
4,369	7,942	9,524	16,431	30,691	11,296
50.71	92.18	110.54	190.70	356.21	—
22.05	24.19	23.30	29.98	35.35	32.14
12,843	20,729	20,900	26,596	31,495	16,813
174.83	282.18	284.51	362.05	428.37	—
64.82	63.15	51.13	48.52	36.28	47.83
1,159	3,110	7,915	6,036	9,842	4,187
58.51	157.00	399.55	304.70	496.82	—
5.85	9.47	19.36	11.01	11.34	11.91
1,441	1,046	2,539	5,750	14,774	2,854
6,250.00	4,754.55	11,540.91	26,136.36	67,154.55	—
7.27	3.18	6.21	10.49	17.02	8.12
19,812	32,827	40,878	54,813	86,802	35,149
110.27	182.72	227.53	305.09	483.15	—
100	100	100	100	100	100

編製하였음.)



<第16圖> 經濟發展段階, 產業構造 및 1人當國民所得에  
따른 地域別輸出構成比 推移

高所得地域 指すれば 市場性이 強한 地域에의 輸出比重은 1956年以來로 激減하여 그 以  
後로는 30% 内外의 低位水準에서 停滯하다가 1961年以來若干의 上昇趨勢를 나타내고 있  
는데 이는 多種一次產品中心輸出國인 韓國의 輸出商品에 대한 高所得地域의 需要減退를 反  
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需要減退는 人工原材料의 代替使用과 技術改善에 의한 原單位  
의 節減과 같은 要因에 緣由하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 經濟開發이 落後되어 있는 所謂 非  
工業地域의 輸出이 停滯化하여 困難을 받고 있다는 事實을勘案할 때 當然한 일이다.<sup>(10)</sup>

(19) 註 (9) 參照.

이에 대하여 中所得地域에의 輸出比重은 1958 年에 紹頂에 達하였다가 1961 年以來로는 反減하고 있으며 第 3 群인 低所得地域에의 輸出比重은 1959 年부터 增大하기 始作하였으나 1961 年以來 若干 減縮되고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보아 1 人當國民所得別地域構造는 多角化의 傾向을 나타내므로 下述 할 品目別分析과 結合되므로서 輸出市場性을 나타내는 指標가 되리라 생각된다.

以上에서 韓國經濟에 있어서의 貿易依存의 必然性 및 當爲性과 아울러 輸出의 自立經濟에의 寄與價值를 考察하고 品目別輸出可能性(export potentials)의 長期的檢出을 위한 豫備作業으로서 韓國輸出貿易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各指標에 의하여 輸出構造를 分析하였다.

이와 같은 實態를 中心으로 한 構造分析을 前提로 하여 摸索할 수 있는 輸出振興方案으로는 여려가지가 있을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本稿에서는 可及的 輸出寄與價值가 크며 成長趨勢가 健實한 品目을 集約的으로 選定하고 이를 中心으로 이의 商品性을 提高하므로서 輸出競爭力を 強化하려는 意識下에 商品別分析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먼저 品目選定作業을 進行하고 그 中에서 順位別로 第 10 位까지의 輸出品目을 決定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次揭論文부터는 品目別로 輸出商品의 供給, 需要, 市場, 競爭등 諸構造에 關聯되는 問題를 包括的으로 解明하므로서 이의 長期的輸出可能性을 輸出商品을 中心으로 換言하면 商品學의 見地에서 檢討하고자 한다.

### III. 品 目 選 定

品目選定을 위한 基礎資料源은 第 18 表와 같은 1955~1963 年에 亘한 時系列資料이다. 品目選定을 위하여 考慮한 要因과 選定作業節次는 다음과 같다.

#### 1. 選定要因

(1) 年平均輸出實績值…… 年間輸出額을 合算하고 이를 輸出實績年數로서 除하여 年平均輸出實績值를 求하였다. 이는 輸出絕對額의 多寡를 直接反映하는 것이므로 輸出稼得額<sup>(21)</sup>을 反映하는 指標로 看做하였다. 이는 擴大均衡體制를 前提로 한 自立經濟의 達成을 위한 均衡誘發의 可能性에의 寄與程度를 直接 示唆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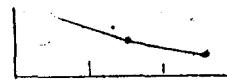
(2) 期別平均輸出實績值…… 1955~1963 に 亘하는 9 個年間을 3 分하여 1955~1957 의

(20) 이러한 方向에 대한 綜合的示唆는 中小企業銀行企劃調查部, 韓國의 輸出中小企業, 1963, p. 140 ff. 韓國銀行調查部, 우리나라의 輸出產業, 1960, pp. 15~19 參照

(21) 이는 單純한 數值로서 純附加價值 例컨대 輸入原材料의 原價를 差減한 純輸出稼得額과는 다른 概念으로서 使用하였다. 왜냐하면 보다 더 細密한 分析作業敘이는 輸出品目的 純稼得額算定은 不可能하므로 本選定作業에서는 考慮하지 않기로 하였던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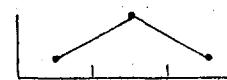
3年間을 第 1期(前期), 1958~1960 의 3年間을 第 2期(中期), 1961~1963 의 3年間을 第 3期(後期)로 하고 각期별로 年平均實績值算出方法을 準用하여 期別平均輸出實績值를 算出하였다. 이를 指標로 삼은 理由는 成長趨勢의 上昇下降傾向을 下述할 趨勢變動比와 함께 보다 鮮明히 浮刻하고자 한 까닭이다. 왜냐하면 下述한 趨勢變動比는 但只 平均成長趨勢를 나타낼 때에는 다음과 같은 模型을 導入使用하였다.

① 第 1期(前期)偏倚～ 第 1期 實績值가 第 2期 및 第 3期보다 훨씬 높은 경우로서 下向趨勢를 示唆하는 것으로 看做하였다. 第 1期에는 높고 中期에 下降하였다가 다시 第 3期에 增大한 것도 이와 같이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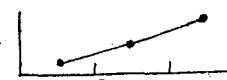
第 1期(前期)  
偏倚型

② 第 2期(中期)偏倚～ 第 2期가 다른 期보다 큰 경우로서 亦是 下向趨勢를 나타내는 것이다 第 1期偏倚보다는 趨勢가 緩慢한 것으로 看做하였다.



第 2期(中期)  
偏倚型

③ 第 3期(後期)偏倚～ 第 3期 實績值가 第 1 및 第 2期보다 큰 경우로서 上向趨勢를 示唆하는 것으로 看做하였다. 그리고 第 1期 및 第 3期에는 輸出實績이 높았으나 第 3期에 下降한 것도 같이 다루었다.



第 3期(後期)  
偏倚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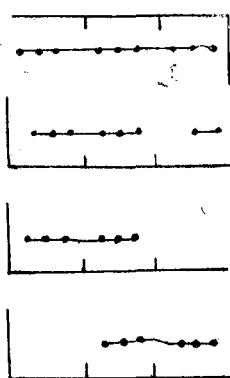
(3) 趨勢變動比年平均…… 1955年을 基準으로 하여 算定한 各年度別輸出額指數를 合算하고 實績年數로서 이를 除하여 얻었다. 이는 品目別成長趨勢를 示唆하는 것이다. 그러나 基準年度의 實績值如何에 따라 趨勢比가 달라져서 趨勢值가 順位와는 密接한 相關關係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므로 平均值와 基準年度와의 格差를 算定하고 이에도 順位를 붙였다. 그리하여 趨勢變動比의 順位와 基準年度와 平均值와의 格差에 따른 順位를 合計하고 이에서 最終的인 趨勢變動比의 順位를 決定하였다.

(4) 對前年比平均增減率…… 對前年比의 純增減率을 合算하여 實績年數로 除하였다. 이는 成長趨勢를 示顯하는 品目的 成長規模를 考慮하기 위하여 選定한 要因이다.

(5) 無實績年數…… 實績이 全然 없었던 年數로서 輸出產業育成 및 輸出伸長의 安定性을 判別하기 위한 指標로 選擇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模型을 導入使用함과 아울러 無實績年數의 多寡에 따라 綜合的順位를 決定하였다.

① 安定成長型～無實績年數가 全然 없는 경우이다.

② 非安定成長型～無實績年數가 1以上 있는 경우로서 다시 다음과 같이 細分하였다.



- 安定成長型  
非安定成長型  
a) 斷續成長型  
b) 没落成長型  
c) 發展成長型

a) 斷續成長型 ~ 無實績年數가 實績年數間に 散在하는 경우.

b) 没落成長型~無實績年數가 後期年間에 偏倚해 있는 경우.

c) 發展成長型~無實績年數가 前期年間에 偏倚해 있는 경우.

(6) 構成比年平均…… 品目別로 各年度別輸出比重을 合算하고 實績年數로서 除하여 算하였다.

이 數值는 1955~1963 年間平均輸出比重과는 다

르다. 왜냐하면 이는 實績年度의 特殊性이 反映된 數值으로 이의 合計는 平均值에 의한 構成比와는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實績年度別特殊性이勘案된 構成比라 할수 있는 것이다.

## 2. 選定節次

順位法(merit method)에 의하여 第 18 表를 資料源으로 하여 各選定要因에 따른 品目別 實績의 大小를 比較하여 順位를 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年平均輸出實績值, 對前年比平均增減率, 平均構成比는 實數의 大小에 따라 順位를 順次로 決定하였으나 期別平均輸出實績值, 趨勢變動比平均 및 無實績年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順位를 決定하였다.

(1) 期別平均輸出實績值…… 이는 模型에 準하여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

- a) 第 3 期偏倚： 1 位 (第 1 型)
- b) 第 2 期偏倚： 2 位 (第 2 型)
- c) 第 1 期偏倚： 3 位 (第 3 型)

(2) 趨勢變動比平均……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趨勢變動比의 大小에 따른 順位와 1955 年度基準值와 平均值와의 格差順位를 合計하고 이에 따라 綜合順位를 決定하였다.

(3) 無實績年數…… 이는 模型에 準하여 順位를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

- a) 安定成長型： 1 位 (第 1 型)
- b) 非安定成長型
  - ① 斷續成長型： 3 位 (第 3 型)
  - ② 没落成長型： 4 位 (第 4 型)
  - ③ 發展成長型： 2 位 (第 2 型)

그리고 非安定成長型에 屬하는 各類型은 다시 無實績年數에 따라 配列한 後 全般的順位를 決定하였다. 이러한 作業結果를 作表한 것이 第 24 表이며 順位合計에 따라 最終的順位를 決定하였다. 먼저 第 24 表의 結果에 따라 第 25 表와 같은 品目別順位一覽表를 作成하고

&lt;第24表&gt; 品目選定을 위한 順位表

番 號	品 目	年平均輸出實績		期別平均輸出實績		趨勢變動比年平均				對前年比增減率年平均		構成比年平均		無實績年數	
		實 數	順 位	順 模 型	順 位	趨勢變動比 均		1955年 平均值外 的差 額	順 位	順 位	% 合計	順 位	% 合計	順 位	年 數
						%	順 位								
1	豚	1,692	7	第1型	1	1,242	4	1,558	40 44 14	177	6	3.16	9	第2型	4
2	鮮魚介類	1,413	8	"	1	796	6	1,238	37 43 13	48	19	3.57	8	第1型	0
3	乾魚介類	1,392	9	"	1	5,886	1	1,160	36 37 8	76	15	4.08	7	"	0
4	貝類 軟體動物	520	15	"	1	222	15	469	31 46 16	151	8	0.83	25	"	1
5	魚介類 (善至罕)	96	34	"	1	3,337	2	96	21 23 1	155	7	0.17	38	第3型	0
6	筍	2,107	3	"	1	257	14	1,332	38 52 20	267	4	6.75	3	第1型	4
7	鮮果	116	31	"	1	918	5	104	22 27 3	92	11	0.36	32	第3型	0
8	小豆	226	25	第2型	2	61	38	65	13 51 19	266	5	0.93	23	第1型	3
9	김	805	14	第1型	1	261	13	511	32 45 15	338	3	2.58	13	"	0
10	毛皮	146	28	第3型	3	28	40	220	28 68 28	-2	37	0.59	26	"	0
11	樹皮	209	26	"	3	86	34	6	236 7	5	33	0.85	24	"	0
12	副絲	367	20	第1型	1	92	31	13	5 36 7	14	32	1.33	18	"	0
13	生絲	1,945	5	"	1	141	21	670	34 55 22	28	24	5.52	4	"	0
14	植物纖維	91	35	第3型	3	74	36	16	6 42 12	49	18	0.38	31	"	0
15	織物屑材	127	29	"	3	50	39	79	20 59 24	19	28	0.52	28	"	0
16	石	72	38	"	3	64	37	23	8 45 15	-13	38	0.34	33	"	0
17	高嶺土	164	27	第1型	1	156	20	66	14 34 6	21	27	0.55	27	"	0
18	黑鉛	1,207	10	第3型	3	88	32	17	7 39 10	3	34	4.81	5	"	0
19	螢石	469	16	第1型	1	162	19	197	26 45 15	17	30	1.46	17	"	0
20	重晶石	18	43	"	1	76	35	3	1 36 7	39	21	0.05	42	"	0
21	스티어타크(滑石)	318	22	"	1	116	25	70	16 41 11	21	27	1.07	22	"	0
22	鐵鑛	3,296	2	"	1	136	22	1,103	35 57 23	18	29	9.47	2	第2型	2
23	보오크사	38	41	第3型	3	126	23	11	4 27 3	0.9	36	0.15	39	"	2
24	이트 및 鑛	310	24	第1型	1	50	39	209	27 66 27	23	25	1.09	20	"	2
25	亞鉛	43	40	"	1	205	17	24	9 26 2	73	16	0.08	41	第3型	4
26	매거니즈	33	42	第3型	3	5	41	96	21 62 26	77	14	0.14	40	第4型	4
27	卑金屬	311	23	第1型	1	99	28	36	10 38 9	45	20	0.83	25	第1型	2
28	重石	3,530	1	"	1	95	30	319	30 60 25	2	35	11.65	1	"	2
29	獸骨(粉)	106	33	第3型	3	97	29	8	3 32 5	22	26	0.41	29	第1型	0
30	豚毛	835	13	第1型	1	113	26	168	25 51 19	28	24	2.48	14	"	0
31	五倍子	82	37	第2型	2	538	8	67	15 23 1	84	13	0.27	35	"	0
32	人蔘	324	21	第1型	1	118	24	75	18 42 12	37	22	1.23	19	"	0
33	蜜柑	945	12	第1型	1	109	27	164	24 51 19	15	31	3.01	10	"	0
34	植物性肥料	442	18	"	1	192	18	225	29 47 17	63	17	1.08	21	"	0
35	非食糧用	448	17	"	1	74	36	74	17 53 21	14	32	1.59	16	"	0
36	海藻類	1,021	11	"	1	221	16	649	33 49 18	589	2	2.80	12	"	0
37	無肝油	86	36	第2型	2	283	11	57	12 23 1	35	23	0.40	30	第4型	1
38	薄荷腦(丸)	125	30	第1型	1	375	9	122	23 32 5	117	9	0.24	37	第2型	4
39	人蔘精	107	32	"	1	349	10	78	19 29 4	109	10	0.29	34	"	4
40	單合板	1,970	4	"	1	1,823	3	1,860	41 44 14	1,030	1	2.91	11	"	4
41	綿織物	1,718	6	"	1	608	7	1,442	39 46 16	77	14	4.53	6	"	2
42	水晶	71	39	第2型	2	274	12	46	11 23 1	90	12	0.25	36	第1型	0
43	蒼鈴	424	19	第3型	3	87	33	8	3 36 7	-2	37	1.91	15	第4型	2

註：單位未滿輸出은 無實績年으로 取扱하였음. (資料源: 第18表에 의함)

&lt;第25表&gt; 順位一覽表

番號	品目	年平均輸出實績	期別平均輸出實績	趨勢變動比年平均	對前年比年平均	構成比年平均	無實績數年	順位合計	順位
1	豚	14	1	14	6	9	6	50	3
2	鮮魚介類	16	1	13	19	8	1	58	6
3	乾魚介類	18	1	8	15	7	1	50	3
4	貝類及軟體動物	30	1	16	8	25	2	82	12
5	魚介類(통조림)	68	1	1	7	38	7	122	27
6	筍	6	1	20	4	3	4	38	1
7	鮮果	62	1	3	11	32	7	116	23
8	小豆	50	2	19	5	23	3	102	19
9	김	28	1	15	3	13	1	61	7
10	毛樹皮	56	3	28	37	26	1	151	34
11	皮	52	3	7	33	24	1	120	26
12	副蟲絲	40	1	7	32	18	1	99	18
13	生絲	10	1	22	24	4	1	62	8
14	植物纖維	70	3	12	18	31	1	135	30
15	織物	58	3	24	28	28	1	142	32
16	石材	76	3	15	38	33	1	167	36
17	高嶺土	54	1	6	27	27	1	116	23
18	黑鉛	20	3	10	34	5	1	73	11
19	螢石	32	1	15	30	17	1	96	16
20	重晶石	86	1	7	21	42	1	158	35
21	스탈리트	44	1	11	27	22	1	106	21
22	鐵	4	1	23	29	2	5	64	9
23	보르탈리트	82	3	3	36	39	5	168	37
24	알미늄	48	1	27	25	20	5	126	28
25	亞鉛	80	1	2	16	41	8	148	33
26	鋅	84	3	26	14	40	11	178	38
27	卑金屬	46	1	9	20	25	5	106	21
28	重石	2	1	25	35	1	5	70	10
29	獸骨(粉)	66	3	5	26	29	1	130	29
30	豚毛	26	1	19	24	14	1	84	13
31	五倍子	74	2	1	13	35	1	126	28
32	人蔘	42	1	12	22	19	1	97	17
33	塞天	24	1	19	31	10	1	86	14
34	植物性原材料	36	1	17	17	21	1	93	15
35	非食用海藻類	34	1	21	32	16	1	105	20
36	無煙炭	22	1	18	2	12	1	55	5
37	肝油	72	2	1	23	30	9	137	31
38	薄荷腦(丸)	60	1	5	9	37	6	118	24
39	人蔘精	64	1	4	10	34	6	119	25
40	單合板	8	1	14	1	11	6	41	2
41	綿織物	12	1	16	14	6	5	54	4
42	水晶	78	2	1	12	36	1	130	29
43	蒼鉛	38	3	7	37	15	10	110	22

(資料源：第24表에 의함)

各要因別順位를 合計한 後 順位合計가 가장 적은 品目이 가장 높은 寄與價值를 反映하는 것으로 보아 選定하기로 하였다.

6個選定要因中 年平均輸出實績 및 構成比年平均의 兩要因은 輸出實績 내지 輸出規模를 反映하는 것이며 對前年比平均增減率은 年間擴大規模을 其他의 3要因은 成長趨勢를 反映하는 것이다.

그런데 本稿에서는 輸出絕對額이 금과 아울러 比較的 成長趨勢가 安定的上昇傾向을 나타내는 品目을 有目的으로 選定하여 그 長期의 輸出可能性를 檢討하려는 目的意識을 가졌으므로 輸出絕對額을 反映하는 要因인 年平均輸出實績을 보다 重視하기로 하여 餘他의 要因과는 달리 그 順位의 倍數를 擇하기로 하였다. (第25表 第3欄 參照)

이러한 選定作業의 結果 決定된 順位別로 韓國重要輸出商品을 例示하면 粽, 單合板, 豚 및 乾魚介類(同位), 編織物, 無煙炭, 鮮魚介類, 김, 生絲, 鐵鑛, 重石鑛, 黑鉛, 貝類 및 軟體動物, 豚毛, 寒天, 植物性原材料, 蟹石, 人蔘, 副鬚絲, 小豆, 非食用海藻類, 卑金屬鑛, 蒼鉛, 鮮果 및 高嶺土(同位) 薄荷腦(丸), 人蔘精, 樹皮, 魚介類(通조림), 스티어타이트와 탈크(同位), 鉛鑛 및 五倍子(同位) 獸骨(粉) 및 水晶(同位), 植物纖維, 肝油, 織物屑, 亞鉛鑛, 毛皮, 重晶石, 石材, 맹거니즈鑛으로 되어 있다.

이에서 볼때 大體로 本選定作業結果 決定된 順位中 上位에 屬하는 品目은 輸出實績面에서 본 順位와 類似함을 알 수 있으며 順位에 若干의 變動이 생기게 된 것은 成長趨勢其他등의 要因에 의한 影響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上述한 研究品目順位의 決定은 大體로 安當한 것임을 類推할 수 있는 것이다.

### 3. 研究品目の 決定

本稿에서 研究하게 될 品目은 順位가 10位 以內인 11個品目 즉 粽, 單合板, 豚, 乾魚介類, 鮮魚介類, 編織物, 無煙炭, 김, 生絲, 鐵鑛, 重石鑛이며 앞으로의 後揭論文에서 品目別로 長期의 輸出可能性를 檢出하고자 한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專任講師  
서 울 大 學 校 商 科 大 學  
韓 國 經 濟 研 究 所 研 究 員]

<Summary>

**A Study on the Long-Term Export Potentials  
of  
Korean Export Goods  
(Part I—Prelude)**

— Especially in the Viewpoint of Commodities\*\* —

*Won-Soo Kim\**

**I. Introduction.**

If an effort is to be made to study the long-term export potentials of Korean export goods, it is necessary to know something of their present status. Have total exports shown a tendency to increase? What kinds of goods have been exported, and in what order of volume? Has the composition of exports changed? What are the chief exports? As a matter of course, it is rather significant to examine crudely the historical inevitability of dependency on foreign trade of Korean economy and her conditions of th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In this connection, a brief survey of the unbalanced growth of Korean industry and the unfavorabl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have been made as an introductory research. The conclusion on these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Korean economy is run on an unbalanced structure of industry and has been depended much on foreign trade to support the level of normal living of her people and to invest for economic development.

First : The unbalanced growths both of industry and of manufacturing industry have necessitated the imports of not only raw materials but investment goods

---

\* Instructor of Business Management,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odities is not a proper and well recognized English name for the systematized knowledge of merchandise.

This term is originally used in the work of Kosaka Torizo, Professor of Waseda University in Japan. Though it has not been a popular and universally accepted scientific name for the systematized knowledge of merchandise, I use it as a temporal scientific name for merchandise information.

(equipments and installation) for the purpose of replacement and new investment.

Second: Efforts for strategical construction of heavy industry have induced the demand for imports of heavy installation goods.

Third: Relatively, being in the condition of over-production, overequipped consumers' good's industry will seek sooner or later for foreign export markets.

2. Total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exceeded exports by approximately \$ 292.3 million on an average in the nine year period of 1955~1963. This means that the dollars which Korea have earned by the sale of goods and services to the foreign countries fell short by \$ 292.3 million on an average, of paying for the goods and services bought from foreign countries.

The deficit of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 292.3 million gap on an average, was filled up by donations and foreign capital investment. Korea has been characterized as debtor nations. Korean economy is now on her way to the formation of balanced self-sufficing economy, and needs much foreign exchange. Export earnings are key supplier of foreign exchange in Korean economy. In this sense, export promotion has been spotlighted as emergent ever-solving problems.

## II. Structure of Korean Export Trade.

Exports of goods, if measured by value, have been expanded steadily since 1960, though there was a slight drop in 1958. The scale of exports had grown approximately up to five times in 1963, compared with that of 1955. The index of export earnings is as shown in Table I.

Table I (1955 : 100)

Year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Index (%)	100	137	124	92	115	183	228	305	483

(Source: The Bank of Korea, Economical Statistical Yearbook, 1964, pp. 212)

※ Korean export trade in value shows and will show the steady upward trend.

By the group of export goods classified by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s, it shows that inedible crude material (48.88%), food and live animals (22.31%), and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16.79%), have occupied the largest parts of its composition in average in the nine year period of 1955~1956. Composition by export commodity group has been occupied by inedible crude material approximately 80% in the early years, but

in latest years it fell about 30%, while food and live animals holds 20% and manufactured goods 20% in 1963. The important kinds of goods which have been exported, shown by its merits of value in average in the nine year period of 1955~1963, are as follows; tungsten ore and concentration (11.80%), iron ore and concentration (11.00%), rice (7.05%), veneer sheets and plywoods (6.59%), swine (6.56%), raw silk (6.53%), cotton fabrics (5.74%), fresh fish (4.72%), dried fish (4.65%), natural graphite (4.04%), anthracite (3.80%), agar-agar (2.69%), bristles (2.79%), dried laver (2.69%), crustacea and molluscs (1.74%), flourspar (1.57%), inedible seaweed (1.50%), unwrought bismuth (1.42), waste silk (1.23%), ginseng (1.08%), steatite and talc (1.06%), lead ore and concentration (1.04%), etc.

Most of these goods have been exported to other Asiatic countries and America. They have been importing 87.31% of our total exports (Asia 63.58% and America 23.46%), if measured by 1955~1963 average value. Exports to Europe are 11.20%.

Exports to both Asia and Europe have been increasing, while those to America have been decreasing. Japan imported 67.1% of exports to Asia and U.S.A. 98.85% of those to America.

In the case of exports to Europe, however, many countries have been importing our export goods in small amounts. Those nations are the United Kingdom (305%), Italy (1.62%), West Germany (1.57%), the Netherlands (1.36%) and etc.

### III. Selection of Commodities to be Studied.

My research plan will cover respectively all of the Korean export goods. But because of restriction of time and efforts, ten commodities that seem to have the highest export potentials will be selected and studied in turn in a series of treatises.

1.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selection.
  - 1) export earnings on the average (1955~1963)
  - 2) periodical export earnings on the average (1955~1963)
  - 3) ratio of trend value in average (1955~1963)
  - 4) ratio of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value to previous year in average (1955~1963)
  - 5) number of non-exported years

6) ratio of composition to yearly total export value in average (1955~1963)

## 2. Method of selection.

Whole of the important Korean export goods gets the order by merit methods, and the order given by merit is as follows: rice, veneer sheets and plywood, swine and dried fish (same merit), cotton fabrics, anthracite, fresh fish, dried laver, raw silk, iron ore and concentration, natural graphite, crustacea and molluscs, bristles, agar-agar, fluorspar, ginseng, waste silk, red or white bean, inedible seaweeds, unwrought bismuth, fresh fruit, and kaolin, (same merit), menthol and menthol balls, ginseng tonic, tree back, canned fish and steatite and talc, (same merit), lead ore and concentration and gallnuts (same merit), animal bones, rock crystal (same merits), liver oil, zinc ore and concentration, undressed fur skins, barytes, building and monumental stones (not worked), manganese ore and concentration.

## 3. Determination of commodities to be studied.

In my serial research works, long term export potentials of the following eleven commodities will be discussed respectively with special emphasis on their commoditic aspects.

- 1) rice
- 2) veneer sheets and plywood
- 3) swine
- 4) dried fish
- 5) cotton fabrics
- 6) anthracite
- 7) fresh fish
- 8) dried laver
- 9) raw silk
- 10) iron ore and concentration
- 11) tungsten ore and concentration